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교육학석사 (음악교육) 학위논문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은미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opular Music Audition Programs
on Music Edu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201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은미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한 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 은 미

정은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인)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차.....	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3. 선행연구 고찰.....	2
II. 이론적 배경.....	3
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개념.....	3
2.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변천.....	4
3.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악교육.....	12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도구.....	21
3. 연구절차.....	22
4. 자료처리.....	22
IV. 연구결과.....	23
1. 대중음악 선호도.....	23
2.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24
V. 결론 및 제언.....	49
참고문헌.....	52
부록(설문지).....	53

표 목 차

<표 1> 오디션 프로그램의 개념.....	3
<표 2> 지상파와 케이블 오디션 프로그램.....	6
<표 3> ‘슈퍼스타K 시즌1~5’ 회 차별 시청률.....	7
<표 4> ‘위대한 탄생 시즌1~3’ 회 차별 시청률.....	8
<표 5> ‘K-POP Star 시즌1~2’ 회 차별 시청률.....	10
<표 6> 중학교 음악교과서 5종에 수록된 대중음악.....	14
<표 7>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장르별 곡수.....	17
<표 8>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영역별 곡수.....	18
<표 9> 출판사별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의 수록도.....	19
<표 10> 연구대상자 현황.....	21
<표 1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설문조사 주요 구성 내용.....	22

그림 목 차

[그림 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 정도	24
[그림 2]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기대감.....	25
[그림 3]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 정도	25
[그림 4]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도전 욕구.....	26
[그림 5] 음악 검색 정도.....	27
[그림 6] 음악 다운로드 경험.....	27
[그림 7] 음악적 대화 경험.....	28
[그림 8]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추천	29
[그림 9] 대중음악의 새로운 곡에 대한 호기심	29
[그림 10]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	30
[그림 1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음악활동 욕구.....	32
[그림 12] 우리학교의 음악동아리, 특별활동 등 참여 욕구.....	33
[그림 13]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악기.....	33
[그림 14] 보컬관련 음악 실태.....	34
[그림 15] 음악 공연 참여 실태	35
[그림 16] 개인적으로 가수의 콘서트, 야외음악 공연 참여 실태.....	36
[그림 17]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노래에 관심 정도.....	36
[그림 18] 뮤지컬 관심 정도	37
[그림 19] 키보드, 피아노에 관심 정도.....	38
[그림 20] 드럼, 기타에 관심 정도	38
[그림 2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음악수업시간 흥미 정도	41
[그림 22] 음악수업 시간이 부족.....	41
[그림 23] 음악수업 시간 중 가창수업.....	42
[그림 24] 음악수업 시간 중 악기수업.....	43
[그림 25] 음악수업 시간 중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 만들기	43
[그림 26] 음악수업 시간 중 클래식 음악 감상.....	44
[그림 27] 음악수업 시간 중 영상음악을 이용한 감상 수업.....	45
[그림 28] 음악수업 시간 중 음악을 활용한 신체 리듬표현 시간.....	45
[그림 29] 음악수업 시간 중 음악활동 시간.....	46
[그림 30] 음악수업이 있는 날의 기분.....	47
[그림 31] 학교음악의 생활화 정도	47

ABSTRACT

The Effects of Popular Music Audition Programs on Music Edu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Eun-mi Jung

Advisor : Prof. Han-na Lee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se days, adolescents are living in diverse cultural environments and undergoing rapid social changes. They have access to a variety of forms of mass media and information in real-time and the culture of every country is permeating quickly into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Such a phenomenon has appeared in changes in music and the recent increase in popular music audition programs shows the musical tastes of adolescents.

Popular music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usic styles in the 21st century and is consumed by the public rather than being consumed by any special class. As adolescence is the period when students are sensitive and form their identities, this study looked at the musical preferences and interests of the subjects who had access to popular music audition programs. Then, their influence on the subjects and methods to develop them in music education was examined.

Also, the genres preferred by the subjects, what influence music mass media had on the subjects, and how much interest they had in popular music were examined.

The procedure of the study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plored the current status of popular music audition programs on each TV channel, the program rating, and the success factors.

Second, the study developed a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what genre the subjects accepted and preferred.

Third, the study investigated the popular songs that were published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based o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nd proposed how to apply students perceptions on popular songs.

Fourth, the study looked at students opinions on the programs, interests, and musical motivation connected with music education, and what influence they had on music clubs and after school music activities through the questionnaire including correlations between the audition programs and music ability.

Today, popular music education holds more importance with adolescents than education in any other genre. In the future, steady research and efforts are needed so that music education can communicate with adolescents and they can develop firm identities in music education for an abundant personal life.

Key words: popular music audition programs, adolescents, middle school, 2009 revised music textbook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의 정서를 담당하는 학교음악교과의 시수(始數)가 교육과정 개편으로 줄어들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음악으로 시선을 돌려가고 있다.

최근 대중매체에서는 청소년들의 치열한 경쟁의식을 반영한 듯 다양한 분야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중 대중음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음악 선호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음악의 변화와 경쟁의 형태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음악교육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따라서 학교 음악교육에서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의 수용 방안과 음악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선호와 취향을 분명히 알 경우에 교육과정 개편으로 침체된 학교 음악교육에서 적극적이며 즐겁게 학습할 대안이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즉 대중음악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공요인을 알아보고,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음악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어떤 음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접하는지 조사하여 이를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성공요인을 알아본다.
- 2) 중학생들의 대중음악 선호도를 알아보고, 중등음악교과서 5종의 대중음악 영역을 분석한다.
- 3) 중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소감, 음악수업에 대한 동기 부여, 음악활동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고 분석한다.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대중음악이 중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대중음악에 관한 영향과 적용 방안에 관한 논문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강세운(2012), 논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현황과 방송사별 시청률 조사방법을 통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리얼리티(경쟁)에 관한 현실적 문제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연구내용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박영선(2009), 논문에서 대중(가요)를 이해하고 청소년기의 특성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활과 음악’의 교육목적 달성과 함께 대중음악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요소와 매체들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대중음악의 인식을 바꾸고 음악의 양식, 장르별 특징에 따른 실험적인 수업으로 창조적인 음악수업을 실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의 가능성을 기대하였다.

방소민(2009), 논문에서 설문을 통한 조사방법과 음악교과서의 대중음악 수록곡을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를 통하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중음악 제재곡에 맞는 지도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여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영역별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음악이 즐거워야 하며, 포괄적인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 또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중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설문을 통한 대중음악에 관한 의견, 학교수업에서의 적용방안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연구들은 학생들의 대부분이 대중음악을 좋아하며, 대중음악을 활용한 음악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학생들이 대중음악을 즐기는 방송매체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학교 수업에서의 적용방안을 위하여 학생들의 음악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음악문화의 다양성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볼 수 있었던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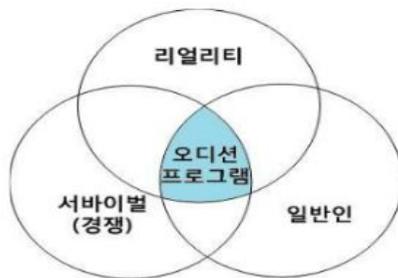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개념

오디션 프로그램은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 또는 ‘서바이벌 쇼’라고 불리는데 시청률에 있어서나 방송 산업 내에서의 성장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장르가 되었다(Joniak, 2001). 오디션 프로그램은 초기 인포테인먼트 텔레비전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이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주요한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중 비평가들과 학자들은 새로 등장한 사실적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시라큐스 대학의 텔레비전 연구센터장인 로버크 톰슨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유행 단계 그 이상으로 전진했으며 하나의 양식으로서의 위치에 까지 도달했다고 단언했다(Hill, 2005).

<표 1> 오디션 프로그램의 개념



서바이벌(경쟁)		리얼리티		일반인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빅브라더	나는 가수다	누가 백만장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가?	무한도전 1박 2일 런닝맨	아메리칸 아이들 브리튼즈 갓 텔런트	슈퍼스타K 위대한 탄생 K-Pop Star 보이스 코리아

*출처: 강세윤(2012).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성행하기 시작한 프로그램 포맷으로 비교적 역사가 짧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 개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유행하는 ‘리얼리티 게임 쇼’와 ‘아메리칸 아이돌’과 같은 경연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비교적 가장 최근에 등장한 장르로서 시청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끊임없이 감지하고 이를 수용해오는 발전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강세운, 2012, pp. 19~20에서 재인용).

2.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변천

오디션은 ‘경청하다’는 뜻의 라틴어 ‘아우디레(audire)’에서 유래했다. 영화나 연극, 뮤지컬 배우와 가수를 선발하던 방법인 오디션이 이젠 재능 있는 일반인을 뽑는 TV방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1) 1970년대 후반 ~ 2000년대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로는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전국노래자랑이 있다.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는 1977년 시작된 대학가요제와 2년 후 신설된 강변가요제이다. 30년 넘게 자리해 온, 두 행사는 1980년대까지 수많은 신인 가수들을 배출해왔다. 전국을 돌며 일반인 출연자들이 장기를 뽑내는 전국노래자랑도 오디션 프로그램의 초창기를 함께 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1980년부터 31년째 방송 중에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예계 데뷔를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의 역사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는 2001년 SBS ‘영재육성프로젝트-99%의 도전’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0~20대 청소년 지원자를 선발, 이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더걸스의 선예, 2AM의 조권, 메이다니, 지 소울(G-SOUL) 등이 발탁됐고 임정희와 비는 당시 지원자들의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로 출연하기도 했다). ‘99%의 도전’과 비슷한 시기 MBC에서 방송된 ‘목표달성 토요일-악동클럽’도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중 끼 있는 학생들을 선발, 오디션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거쳐 총 5명을 선발해 ‘악동클럽’이라는 그룹명으로 데뷔시켰다.

이후 박진영과 당시 이미 스타 반열에 오른 비가 공동으로 나선 SBS ‘슈퍼스타 서바이벌’도 인기를 모았다. 국내외 총 12개 도시를 돌며 지원자를 선발,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다.

2) 현재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다양화

TV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가수 지망이었다. 2001년 SBS ‘박진영의 영재 육성 프로젝트-99%의 도전’과 MBC ‘목표 달성 토요일- 악동클럽’을 시작으로 2006년 SBS ‘슈퍼스타 오디션’, 2009년 부터 2013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M.net ‘슈퍼스타 K’,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K-POP Star’ 등이 대표적이다.

3) 방송사별 오디션 프로그램 현황

‘슈퍼스타K’의 흥행 이후 케이블은 물론이고 지상파 3사 까지 국내 예능 프로그램 장르의 흐름은 오디션 프로그램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는 이미 10여년전 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지금도 각광받고 있으며, 선두 주자인 ‘아메리칸 아이들’의 인기 이후 탐험, 인테리어, 패션모델, 디자이너, 요리, 예술, 격투기, 다이어트 등으로 그 영역이 점점 분화되고 있다. 국내 방송가에서도 2000년대 초반 ‘영재육성 프로젝트’, ‘악동클럽’, ‘꿀찌탈출’ 등의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의 쇼 프로그램은 MBC ‘무한도전’, KBS ‘1박 2일’, SBS ‘패밀리가 떴다’와 MBC ‘우리 결혼했어요’ 등과 같이 연예인들 간의 인간관계와 사생활을 다룬 ‘가상’ 리얼버라이어티쇼 형식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케이블 채널의 ‘아메리칸 아이들’, ‘브리티시 갓 텔런트’, ‘프로젝트 런웨이’, ‘도전 수퍼모델’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형식을 수용한 국내용 오디션 쇼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해 ‘슈퍼스타 K’와 ‘위대한 탄생’ 등 서바이벌(경쟁) 형태의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하나의 예능오락 장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강세윤, 2012, p. 52에서 재인용; 이윤정, 2009; 허미경, 2011).

<표 2> 지상파와 케이블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사	프로그램	분야
MBC	“위대한 탄생”	가수
	“신입사원”	아나운서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	가수
	“댄싱 위드 더 스타”	댄스
KBS	“밴드 서바이벌 TOP 밴드”	가수(밴드)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	글로벌 리더
SBS	“기적의 오디션”	연기자
	“김연아의 키스 & 크라이”	피겨 스케이팅
	“K-Pop Star”	가수
Mnet	“슈퍼스타K”	가수
	“보이스 코리아”	가수
tvN	“오페라 스타 2011”	가수
	“코리아 갓 탤런트”	재능
On Style	“도전! 슈퍼모델 KOREA”	모델
	“프로젝트 런데이 코리아”	패션 디자인

*출처: 강세윤(2012).

4)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 분석

시청률은 텔레비전의 시청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통계수치이다. 이것은 즉 누가, 특정 시간대에 무슨 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하는가를 측정한 수치이다(정용찬, 2008, p. 180).

오늘날은 시청률을 기계식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계식 조사가 조사자정에 기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것을 비롯해 몇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다른 어떤 방법보다 정확한 시청률을 조사 할 수 있어서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를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이 방법은 시청률 자동 분석 원격 장치인 오디미터(audiometer) 또는 피플미터(people meter) 라는 전자 측정기를 텔레비전 수상기에 부착하여 TV를 켜면 자동으로 기계가 작동하여

수상기가 언제 무슨 채널에 얼마 동안이나 켜져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송신하여 매일 시청률을 측정한다. 이 측정기는 중앙의 컴퓨터에 자료를 송신하여 매일 시청률을 집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사방법을 활용하면 방송사의 책임자는 자사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어떤지를 다음날 아침이면 파악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피플미터 방식으로 TV 시청률을 조사하는 회사로는 ‘TNS 미디어 코리아’ 와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의 두 개 회사가 있다. TNS의 경우 패널 가구의 화면과 각 방송사의 화면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프로그램 시청 여부를 기록하는 픽처 매칭(picture matching) 방식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이와는 달리, AGB의 경우는 주파수 탐지(frequency detection)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한 시청률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 두개의 회사에서 시청률을 생산하고 있어 같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조사회 사에 따라 시청률에 차이가 나며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 이 때문에 시청률 조작 공방이 일기도 했고, 민간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시청률 데이터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강세윤, 2012, p. 54 에서 재인용; 정용찬, 2008, p. 176).

다음은 ‘슈퍼스타K 시즌1~5’ 의 회 차별 AGB 시청률을 조사 분석한 자료이다.

<표 3> ‘슈퍼스타K 시즌1~5’ 의 회 차별 시청률

슈퍼스타K 1			슈퍼스타K 2		
회차	방송일자	전국시청률	회차	방송일자	전국시청률
1	2009.07.24	2.9%	1	2010.07.23	4.2%
2	2009.07.31	3.5%	2	2010.07.30	3.7%
3	2009.08.07	3.4%	3	2010.08.06	3.9%
4	2009.08.14	4.2%	4	2010.08.13	4.8%
5	2009.08.21	5.6%	5	2010.08.20	6.3%
6	2009.08.28	6.4%	6	2010.08.27	8.5%
7	2009.09.04	6.3%	7	2010.09.03	10.1%
8	2009.09.11	6.4%	8	2010.09.10	12.9%
9	2009.09.18	7.4%	9	2010.09.17	14.0%
10	2009.09.25	7.7%	10	2010.09.24	13.2%
11	2009.10.02	6.1%	11	2010.10.01	13.8%
12	2009.10.09	8.4%	12	2010.10.08	14.7%
			13	2010.10.15	13.6%
			14	2010.10.22	18.1%

슈퍼스타K 3			슈퍼스타K 4			슈퍼스타K 5		
회차	방송일자	시청률	회차	방송일자	시청률	회차	방송일자	시청률
1	2011.08.12	8.5%	1	2012.08.17	6.3%	1	2013.08.09	4.9%
2	2011.08.19	9.4%	2	2012.08.24	9.1%	2	2013.08.16	5.9%
3	2011.08.26	9.9%	3	2012.08.31	8.3%	3	2013.08.23	6.8%
4	2011.09.02	9.4%	4	2012.09.07	7.3%	4	2013.08.30	5.7%
5	2011.09.09	11.5%	5	2012.09.14	7.7%	5	2013.09.06	4.8%
6	2011.09.16	12.7%	6	2012.09.21	8.9%	6	2013.09.13	6.2%
7	2011.09.23	12.3%	7	2012.09.28	10.6%	7	2013.09.20	
8	2011.09.30	13.5%	8	2012.10.05	10.6%			
9	2011.10.07	11.4%	9	2012.10.12	8.9%			
10	2011.10.14	14.0%	10	2012.10.19	8.7%			
11	2011.10.21	12.8%	11	2012.10.26	8.9%			
12	2011.10.28	13.3%	12	2012.11.02	9.1%			
13	2011.11.04	12.9%	13	2012.11.09	8.6%			
14	2011.11.11	13.9%	14	2012.11.16	8.4%			
			15	2011.11.23	8.4%			

* 출처: 위키백과(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케이블에서 방송된 ‘슈퍼스타K 시즌1’의 AGB 닐슨 미디어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0월 9일 방영된 12회 차에서 8.4%, ‘시즌2’ 2010년 10월 22일 방영된 14회 차에서 18.1%의 높은 시청률로 ‘시즌1’에 비해 무려 10% 더 높은 시청률을 나타냈다. ‘시즌3’ 2011년 10월 14일 방영된 10회 차에서 14.0%, ‘시즌4’ 2012년 10월 5일 방영된 8회 차에서 10.6%의 시청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현재 방영 중에 있는 ‘시즌5’ 2013년 9월 13일 방영된 6회 차에서 6.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케이블 채널에서는 이례적으로 동 시간대의 지상파 방송과 비교해도 시청률 우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임을 시청률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음은 ‘위대한 탄생 시즌1~3’의 회 차별 AGB 시청률을 조사 분석한 자료이다.

<표 4> ‘위대한 탄생 시즌1~3’의 회 차별 시청률

위대한 탄생 1			위대한 탄생 2			1위대한 탄생 3		
회차	방송일자	시청률	회차	방송일자	시청률	회차	방송일자	시청률
1	2010.11.05	8.3%	1	2011.09.09	12.2%	1	2012.10.19	6.9%
2	2010.12.03	9.5%	2	2011.09.16	15.8%	2	2012.10.26	8.4%
3	2010.12.10	10.6%	3	2011.09.23	15.5%	3	2012.11.02	9.4%
4	2012.12.17	9.6%	4	2011.09.30	16.4%	4	2012.11.09	10.8%

5	2012.12.24	11.2%	5	2011.10.07	13.1%	5	2011.11.16	8.4%
6	2011.01.07	14.0%	6	2011.10.14	15.3%	6	2012.11.23	9.0%
7	2011.01.14	10.6%	7	2011.10.21	15.7%	7	2012.11.30	9.2%
8	2011.01.21	12.6%	8	2011.10.28	15.1%	8	2012.12.07	9.4%
9	2011.01.28	14.9%	9	2011.11.04	16.6%	9	2012.12.14	8.9%
10	2011.02.04	11.1%	10	2011.11.11	15.0%	10	2012.12.21	9.4%
11	2011.02.11	15.8%	11	2011.11.18	17.4%	11	2012.12.28	8.2%
12	2011.02.18	18.4%	12	2011.11.25	15.5%	12	2013.01.04	7.9%
13	2011.02.25	17.8%	13	2011.12.02	14.0%	13	2013.01.11	6.4%
14	2011.03.04	18.5%	14	2011.12.09	15.9%	14	2013.01.18	6.7%
15	2011.03.11	18.1%	15	2011.12.16	15.3%	15	2013.01.25	7.0%
16	2011.03.18	18.2%	16	2011.12.23	14.6%	16	2013.02.01	6.8%
17	2011.03.25	17.8%	17	2012.01.06	13.7%	17	2013.02.08	6.2%
18	2011.04.01	18.6%	18	2012.01.13	13.8%	18	2013.02.15	6.9%
19	2011.04.08	22.8%	19	2012.01.20	14.6%	19	2013.02.22	6.8%
20	2011.04.15	21.6%	20	2012.01.27	12.2%	20	2013.03.01	7.5%
21	2011.04.22	21.6%	21	2012.02.10	13.6%			
22	2011.04.29	14.6%	22	2012.02.17	12.7%			
23	2011.05.06	21.3%	23	2012.02.24	13.6%			
24	2011.05.13	20.2%	24	2012.03.02	12.8%			
25	2011.05.20	21.7%	25	2012.03.09	11.4%			
26	2011.05.27	21.8%	26	2012.03.16	11.7%			
27	2011.06.03	14.7%	27	2012.03.23	11.6%			
			28	2012.03.30	12.1%			
			29	2012.04.06	6.4%			
			30	2012.04.13	5.7%			
			31	2012.04.20	5.1%			

* 출처: 위키백과(AGB닐슨 미디어리서치)

MBC방송국에서 제작한 “위대한 탄생” 역시 공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시즌1’의 경우 2010년 11월 5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11년 6월 3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방영되었는데, AGB닐슨 미디어리서치에서의 시청률 조사표에 따르면 2011년 4월 8일에 방영된 19회 차에서 22.8%에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시즌2’ 2011년 11월 18일 날 방영된 11회 차 17.4%의 시청률을 보였고, ‘시즌3’ 방영된 2012년 11월 9일 4회 차에서 10.8%의 시청률을 보였다. ‘위대한 탄생 시즌2’는 ‘시즌1’의 준비 부족과 콘텐츠의 부실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을 보완하여 출발했으며, 첫 방송을 전국 시청률 12.2%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 집계)로 순조롭게 시작했다. 하지만, ‘시즌1’에서 처럼 참가자보다 오히려 멘토들에게 집중된 포커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평가들의 근거로 ‘시즌2’는 ‘시즌1’보다 다소 저조한 시청률을 보였다.

다음은 ‘K-Pop Star 1~2’의 회 차별 AGB 시청률을 조사 분석한 자료이다.

<표 5> ‘K-Pop Star 1~2’의 회 차별 시청률

K-Pop Star 1			K-Pop Star 2		
회차	방송일자	시청률	회차	방송일자	시청률
1	2011.12.04	9.3%	1	2012.11.18	14.0%
2	2011.12.11	10.7%	2	2012.11.25	12.7%
3	2011.12.18	10.0%	3	2012.12.02	12.6%
4	2011.12.25	10.4%	4	2012.12.09	14.6%
5	2012.01.01	9.5%	5	2012.12.16	13.3%
6	2012.01.08	11.5%	6	2012.12.23	13.4%
7	2012.01.15	12.5%	7	2012.12.30	13.0%
8	2012.01.22	10.3%	8	2013.01.06	14.2%
9	2012.01.29	13.1%	9	2013.01.13	14.0%
10	2012.02.05	15.0%	10	2013.01.20	14.4%
11	2012.02.12	14.0%	11	2013.01.27	14.0%
12	2012.02.19	17.3%	12	2013.02.03	13.3%
13	2012.02.26	17.1%	13	2013.02.10	10.0%
14	2012.03.04	16.2%	14	2013.02.17	12.8%
15	2012.03.11	16.4%	15	2013.02.24	10.9%
16	2012.03.18	15.8%	16	2013.03.03	10.6%
17	2012.03.25	16.0%	17	2013.03.10	11.9%
18	2012.04.01	19.5%	18	2013.03.17	11.6%
19	2012.04.08	16.6%	19	2013.03.24	10.8%
20	2012.04.15	15.4%	20	2013.03.31	11.8%
21	2012.04.22	19.1%	21	2013.04.07	12.5%
22	2012.04.29	17.6%	22	2013.04.14	7.7%

* 출처: 위키백과(AGB닐슨 미디어리서치)

‘K-Pop Star’는 SBS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의 한 코너로 제작되었다. 첫 프로그램 코너의 시작은 ‘시즌1’ 2011년 12월 04일, 1회 차 9.3%의 시청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중, 18회 차에 19.5%의 높은 시청률을 나타냈다. ‘시즌2’에서는 2012년 11월 18일 1회 차 14%의 시청률로 시작하여 2012년 12월 09일 방영된 4회 차에서 14.6%의 시청률을 보이며 꾸준한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M, YG, JYP 기획사가 참여하여 3사의 트레이닝 방식을 모두 접하며 매회 오디션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

다. 하지만 ‘시즌2’에서 역시 지원자가 각 기획사에 트레이닝을 받을 때 마다, 바뀌는 창법 스타일 경합이 시청자들에게는 ‘안타깝다’는 의견과 함께 ‘시즌1’보다 다소 저조한 시청률로 나타났다.

다음은 ‘불후의 명곡 1~2’의 회차별 AGB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이다.

‘불후의 명곡’은 각 시대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의 명곡을 개인적으로 편곡하여 현재 가수들이 1:1 경합을 통해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구성이다. 2011년 06월 04일 첫 방송에 11%의 시청률을 시작으로 꾸준한 시청률을 보이던 중 2011년 11월 19일 26회 차에서 11.5%의 시청률을 보였으며, 2012년 6월 23일 56회 차에 방영에서 14.2%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23일 방영된 89회 차에서 13.1%의 시청률을 보이며 3년째 매회에 10%이상의 높은 시청률로 방영 중에 있다.

5)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 성공요인인 심리적 요인을 몇 가지로 언급 할 수 있다.

첫째로 공정경쟁의 갈망을 언급하게 된다. 현재의 중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중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힘겨운 난간에 봉착할 때가 있다. 이처럼 입시, 경쟁 등의 큰 관문이 의식 속에 살아가는 중학생들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최종 우승자가 가려지는 과정을 투명하게 비춰줌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 조건으로 선발하는 것을 방송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중학생들 역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반전구도에 의한 예측의 혼돈성이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반전이라는 구도에 있다. 방송 전반에 걸쳐 긴장감 있는 대결구도를 유지하며, 매회 반전을 통하여 중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성적순에 대한 반전 심리를 응용한 극적인 요소로 중학생들을 TV 앞으로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리만족이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중학생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나 참여한다는 점에 있다. 나이, 성별, 직업 등의 아무런 제

약 없이 국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음악오디션 평범한 사람이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 매회 거듭할수록 발전해 나가고 스타성을 키워 나가는 과정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처럼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현재의 중학생들의 심리를 잘 살린 프로그램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억압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시청하고 즐기는 것이다.

3.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악교육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들의 시청소감, 음악수업에 대한 동기 부여, 음악활동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기 이전에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대중음악에 대한 중학생들의 선호도와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중등음악 교과서에서는 대중음악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1) 중학생의 대중음악 선호 경향

우리는 보통 어떠한 것에 대해 ‘선호’ 한다고 말할 때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호’의 의미 안에서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라는 말로는 정의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흔히 선호(preference)와 기호(taste)라는 용어의 의미를 혼동하여,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음악 선호도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선호와 기호라는 용어를 구분 없이 혼동하여 사용한다면, 용어에 대해 정의 내린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연구의 방법이나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연구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음악선호도 연구에서는 선호와 기호라는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 용어의 정의에서는 선호와 기호를 함께 논하려 한다.

선호와 기호는 사실상 단기적, 장기적 선호, 수행이라는 동일 연석선상에 있는 현상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특징을 지닌 현상이라는 것에서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기호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가치와 전제적이고 넓은 범위의 대상과 사건에 대해 몰입하는 것을 뜻하지만, 선호는 이보다 더욱 단기적이고 즉각

적이며 특정한 선택을 의미하며, 기호에 비해 일정한 범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다(신혜원, 2009). 즉 선호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호는 선택이나 평가, 혹은 다른 것보다 우선권을 주는 행위로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선호를 좀 더 외적인 행위로 보기도 한다. 기호의 경우에는 특정한 음악형태나 작곡가 혹은 연주가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보다 안정적 가치에 근거한 선택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길러진 안목의 범위 안에서 선택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선호도를 표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유형으로 행동선호와 행동의도가 있는데, 행동적 선호도는 연주회의 참석 또는 레코드 구입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선택을 보여 주는 것과 관련된 반면 행위적 의도는 인간이 특정한 결정 상황에서 하는 언어적 표현을 필요로 한다(신혜원, 2009, pp. 6~7). 다시 말해 음악 선호도는 ‘어떠한 특징 음악을 지지하는 개인적 특성을 지닌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방소민(2009)은 중학생들이 학교 음악시간 이외에도 가장 많이, 쉽게 접하고 있는 대중음악을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박영선(200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발라드와 힙합 등의 댄스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음악은 학생들의 생활 속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TV방송을 시청할 때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바른 정서를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대중음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다 보면, 학생들은 대중음악을 무분별하게 저속한 음악을 선택하여 듣게 될 수도 있다. 즉, 청소년들은 헤비메탈, 락 음악과 같은 강렬한 사운드의 음악을 들을 때의 심리는 자신들의 내재된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분이라고 하였다(박영선, 2009). 이는 시끄러운 음악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과 바르지 못한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학생들을 바르게 성장 시키고 가르쳐야 할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바른 음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악을 선택하고 학생들이 즐기는 대중음악을 이해하며 이것을 음악교육에 어떻게 적용하여 가르치며, 학생들 정서에 어떠한 음악이 바른 음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하는 것이 음악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한 중학교 음악교육에서 내 전공에 대한 높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과 흥미 있는 구성으로 음악을 즐기며 수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하여금 편견의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음악교사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2) 학교교육에서의 대중음악

대중음악이라는 말은 클래식이나 예술음악에 대하여 일반 대중이 즐겨 부르는 음악을 말한다. 또한 통속적인 성격을 띤 음악으로 고전음악을 제외한 모든 음악을 통칭하는 말로 대체되는 많은 무리의 보통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성격을 띤 음악장르로 대중이라는 코드에는 다소 통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노연주, 2004, p. 4). 현재 음악교육 연구자들은 대중음악의 교육적 활용 논의 및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중학생의 정서에 잘 활용되어 질수 있도록 여러 방법과 장르의 음악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들의 바람직한 음악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대중음악교육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고 있다.

(1) 중학교 음악교과서 대중음악 수록곡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통한 중학교 음악 교과서 중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금성출판사, 도서출판 태성, 두산동아, (주)지학사, 천재교과서 총 5종 교과서 내에 수록된 대중음악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표 6> 중학교 음악교과서 5종에 수록된 대중음악

출판사 (저자)	곡 명	작곡자	장르	영역	쪽
(주)금성 출판사 (김용희, 김신영, 현경실, 현경채, 임인경,	뮤지컬“Watch your step” 중 “다함께 노래를”	어빙 벌린	뮤지컬	가창	p.88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민섭	가스펠	가창	p.89
	영화“라이온킹” 중 “사자가 잠든 고요한 정글”	크리토,페레티, 바이스	영화음악	가창	p.94
	스마일 보이	조영수	가요	가창	p.96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가요	가창	p.97
	영화“보리울의 여름”	이영훈	영화음악	가창	p.102
	Let it be	폴 매카트니	록	가창	p.104
	풍선	김성호	가요	가창	p.108
	몽계구름	이정선	가요	가창	p.108
	You raise me up	러브랜드	팝송	가창	p.109
Sing Sing Sing	루이스 프리마	재즈	가창	p.109	

최유진 오누리)	뮤지컬“오페라의 유령”중 “오페라의 유령”	앤드류 로이드 웨버	뮤지컬	가창	p.118
	뮤지컬“그리스” 중 “여름밤” 문 리버	웨렌 캐이시 헨리 멘시니	뮤지컬 뉴에이지	가창 기악	p.120 p.184
	영화“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중 “언제나 몇번이라도” 그대는 나의 태양	히사이시 조 찰스 미첼	영화음악	기악	p.187 p.189
	오! 생젤리제	디건	팝송	기악	p.211
	오 필승 코리아	이근상	상송	가창	p.247
	We will rock you	프레디 머큐리	응원가	가창	p.247
	영화“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주제곡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	감상	p.248
	영화“서편제” 중 “진도아리랑”		영화음악	감상	p.249
	상젤리제	디건	상송	가창	p.14
도서 출판 태성 (주대창, 홍진표, 노혜정, 김동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예민	가요	가창	p.15
	Redsm Go Together	고석영	응원가	가창	p.21
	도레미송	로저스	뮤지컬	악기	p.106
	항상 몇 번이라도	히사이시조	뮤지컬	악기	p.107
	여행을 떠나요	하지영	가요	가창	p.156
	My Soul	줄라이	팝송	기악	p.158
	오블라디 오블라다	레년& 매카트니	팝송	기악	p.160
	뮤지컬“렌트”중 “Season of Love”	라슨	뮤지컬	가창	p.198
	뮤지컬“캣츠”중 메모리	앤드류 로이드 웨버	뮤지컬	가창	p.319
	뮤지컬“오페라의 유령”중 “오페라의 유령”	앤드류 로이드 웨버	뮤지컬	가창	p.320
	타향살이	손목인	가요	감상	p.354
	굳세어라 금순아	박시춘	가요	감상	p.354
	창 밖의 여지	조용필	가요	감상	p.354
	난 알아요	서태지	가요	감상	p.355
	블루스 앤드 트러블	흑인음악	팝송	감상	p.357
	My Way	프랑수아	팝송	감상	p.358
	Hound Dog	스톨러	록	감상	p.359
	I Want To Hold Your Hand	매카트니	록	감상	p.359
	두산 동아 (최은식, 김대원, 박현숙, 권혜근,	뮤지컬“사운드 오브 뮤직”중 “도레미 송”	로저스	뮤지컬	가창
뮤지컬“사운드 오브 뮤직” 중 “에텔바이스”		로저스	뮤지컬	가창	p.21
풍선		김성호	가요	가창	p.33
내일이 찾아오면		오석준	가요	가창	p.38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가요	가창	p.39
영화“캐리비안 해적”의 주제곡		클라우스 바렐트	영화음악	기악	p.80
영화“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 중 “항상 몇 번이라도”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감상	p.81

강선영,	마법의 성	김광진	가요	기악	p.84
김주연,	라 콤파르시타	로드리게스	탱고	기악	p.85
하명진)	영화“미션임파서블” 주제곡	랄로 시프린	영화음악	기악	p.90
	뮤지컬“레 미제라블” 중 “I dreamed a dream”		뮤지컬	감상	p.107
	뮤지컬“맘마미아” 중 “Dancing queen”		뮤지컬	감상	p.107
	뮤지컬“오페라유령” 중 “All I ask of You”	앤드류 로이드 웨버	뮤지컬	감상	p.107
	뮤지컬“캣츠” 중 “Memory”	앤드류 로이드 웨버	뮤지컬	감상	p.107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롤프 러브랜드	가요	가창	p.139
	영화“라이온 킹” 중 “The Lion sleeps tonight”	와이즈, 페레티, 크리토어	영화음악	가창	p.141
	Sing Sing Sing	루이스 프리마	재즈	가창	p.142
	상젤리제	디건	상송	가창	p.144
	피노키오		상송	가창	p.145
	아름다운 세상	박학기	가요	가창	p.146
	오블라디 오블라다	폴 매카트니	팝송	기악	p.148
	개구쟁이	김창완	가요	기악	p.193
	붉은 노을	이영훈	가요	기악	p.195
(주) 지학사 (정길선, 황병숙, 유건석, 강세연, 박경준, 엄숙용)	검은고양이 네로	프람리오	탱고	가창	p.22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민섭	가스펠	가창	p.26
	아리랑(2002년 월드컵 응원가)	윤도현 편곡	응원가	가창	p.52
	영화“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중 “언제나 몇번이라도”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기악	p.73
	영화“미션”중 가브리엘의 오보에	모리코네	영화음악	기악	p.77
	상젤리제	디건	상송	가창	p.170
	Sing Sing Sing	루이스 프리마	재즈	가창	p.171
	영화“라이온킹” 중 “사자가 잠든 고요한 정글”	크리토, 페레티, 바이스	애니 메이션	가창	p.143
	네모의 꿈	유영석	가요	가창	p.145
	I sing, you sing	에덴로스	재즈	가창	p.180
	뮤지컬“에텔바이스”중 에텔바이스	로저스	뮤지컬	가창	p.217
	The Entertainer	조플린	팝송	기악	p.218
	영화“보리울의 여름”OST 중 “아이들의 합창”	이영훈	영화음악	가창	p.279
	What a Wonderful World	윌리	재즈	감상	p.282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뢰블란	가요	가창	p.283
	오! 필승 코리아	이상혁	응원가	가창	p.78
챔피언	에릭 레비	응원가	가창	p.79	

천재 교과서 (윤명원, 윤경미, 조성기, 이지혜, 최분희)	뮤지컬“오페라의 유령” 중 “생각해 줘요”	로이드 웨버	뮤지컬	가창	p.109
	뮤지컬“지킬 앤드 하이드” 중 “한때는 꿈에”	프랭크 와일드혼	뮤지컬	가창	p.110
	뮤지컬“왕과 나” 중 “셀 위 댄스”	로저스	뮤지컬	가창	p.111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 중 “사운드 오브 뮤직“	R. 로저스	영화음악	가창	p.117
	영화“오즈의 마법사” 중 “무지개 너머”	H.알렌	영화음악	가창	p.118
	정든 그 노래	전석환	가요	가창	p.158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최창언	가요	가창	p.159
	몽계구름	이정선	가요	가창	p.160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가요	가창	p.162
	상젤리제	디건	상송	가창	p.166
	산타 루치아	이탈리아 민요	칸초네	가창	p.167
	You raise me up	R.리브랜드	팝송	가창	p.168
	뮤지컬“맘마미아” 중 “Dancing Queen”	아바	뮤지컬	가창	p.169
	화이트 크리스마스	어빙 벌린	팝송	기악	p.209
	풍선	김성호	가요	기악	p.211

중학교 음악교과서 5종에서 대중음악의 수록곡을 살펴보면 (주)금성출판사는 총 21곡, 도서출판 태성은 총 19곡, 두산동아는 총 23곡, (주)지학사는 총 15곡, 천재교과서는 총 17곡으로 5종에 수록된 대중음악은 총 95곡임을 알 수 있다.

(2) 교과서 내의 대중음악 분석

① 음악교과서 5종에 수록된 장르, 영역별 구분

음악교과서 5종에 수록된 대중음악을 장르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표 7>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 장르별 곡수

장르	곡수
가요	25곡
가스펠	2곡
뉴에이지	1곡
록	3곡
뮤지컬	19곡
상송	6곡

애니메이션	1곡
영화음악	14곡
응원가	6곡
재즈	5곡
칸초네	1곡
탱고	2곡
팝송	10곡

음악교과서 5종에 나와 있는 대중음악 중 가요 장르가 24곡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0곡 이상을 차지하는 장르로는 뮤지컬 16곡과 영화음악 14곡이 있었으며, 탱고와 뉴에이지 각 1곡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은 음악교과서 5종에 수록된 대중음악을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활동영역을 세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표8>과 같다.

<표 8>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영역별 곡수

영역	출판사	곡수
가창 (노래부르기)	(주)금성출판사	16
	도서출판 태성	7
	두산동아	11
	(주)지학사	11
	천재교과서	15
감상 (감상하기)	(주)금성출판사	2
	도서출판 태성	8
	두산동아	5
	(주)지학사	1
	천재교과서	0
기악 (악기 연주하기)	(주)금성출판사	3
	도서출판 태성	4
	두산동아	7
	(주)지학사	3
	천재교과서	2

중학교 음악교과서 5종에 수록된 대중음악 영역 중 가창(노래부르기)영역에서 (주)금성출판사가 16곡으로 가장 많은 가창영역이 수록되었고, 도서출판 태성은 7곡으로 가장 적었다. 감상(감상하기)영역에서는 도서출판 태성이 8곡으로 감상영역에서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천재교과서에서는 0곡으로 대중음악에 대한 감상영역이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악(악기 연주하기)에서는 두산동아가

7곡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천재교과서와 도서출판 태성이 각각 2곡씩으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각 출판사 별로 다루어진 영역의 비중이 다를 수 있었다.

②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의 특징

중학교 음악교과서 5종의 대중음악 영역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출판사별 음악교과서의 대중음악 수록 비중은 높다.

중학교 음악교과서 5종의 대중음악 수록곡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내의 순수음악(서양음악, 가곡, 국악, 다른 나라민요, 대중음악 이외의 음악)과 대중음악의 수록곡 수를 비교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출판사별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의 수록도

출판사	총 수록곡	순수음악	대중음악	대중음악 수록곡(%)
(주)금성출판사	100곡	79	21	21.0%
도서출판 태성	109곡	90	19	17.4%
두산동아	95곡	72	23	24.2%
(주)지학사	77곡	62	15	19.4%
천재교과서	107곡	90	17	15.8%

(주)금성출판사의 경우 순수음악은 총 79곡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악보로 제시되어 있는 곡으로만 국한되어 있지만 순수음악은 국악, 여러 나라의 민요, 가곡 등의 음악을 모두 포함시킨 곡수이다. 그렇다면 순수음악에 비해 대중음악의 수록곡은 21%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이다. 도서출판 태성의 순수음악은 90곡인데 비해 대중음악은 19곡으로 순수음악 중 국악 곡보다 더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다. 두산동아 또한 순수음악은 72곡인데 비하여 대중음악은 23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중학교 음악교과서 내에 대중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둘째, 대중음악의 장르별 활용도가 고르지 못하다.

대중음악의 장르, 즉 종류는 다양하다. 물론 본 연구는 교과서 내의 대중음악 외에도 기존연구와 참고문헌에서 대중음악으로 분류한 범주 내 모든 장르를 대중음악으로 구분 지었다. 하지만 대중음악의 장르와 종류가 다양한 반면, 교과서 내에 수

록되어 있는 장르들은 유행가, 즉 대중가요에만 편중되어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표 7>을 참고해보면, 음악교과서 5종에 수록곡 중에서 대중가요가 많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중음악이 다양한 장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르별 분포도가 가요, 뮤지컬, 영화음악 등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연화, 2012, pp. 37~39).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등음악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현재의 학생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교과서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대중음악이 1990년대의 대중음악을 교과서 내에서 주로 다루어짐에 따라 빠른 변화에 민감한 중학생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서바이벌형식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대중매체의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그 시선을 돌려가고 있다. 이렇듯 대중음악이 앞으로 중학교 음악교육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합적인 음악교육방법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 속에 적용 한다면 중학교 음악수업과 학생들의 음악 문화생활이 긍정적으로 향상되고 효율적인 학습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학생들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대중음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과 중학생의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Ⅲ. 연구방법

중학교 음악에 있어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음악교육 향상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대상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대중음악 선호도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설문 조사는 2013년 9월부터 10월초까지 두 달 동안 J지역 중학교 2학년 남자 150명, 여자 150명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 하였다. 연구대상자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대상자 현황

구분	사례자(N)	백분율(%)
남자	150	50.0
여자	150	50.0

2. 연구도구

중학교 음악에 있어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음악교육 향상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소민(2009)과 박영선 (2009)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중음악 선호도 조사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시청소감, 음악수업에 대한 동기 부여, 음악활동의 욕구 등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

<표 1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설문조사 주요 구성 내용

구 분	구성내용	문항수
첫째	대중음악 선호도 조사	10
둘째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소감	10
셋째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음악수업에 대한 동기부여	10
넷째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음악활동에 대한 욕구	11

중학생의 ‘대중음악 선호도’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소감, 음악적 동기, 음악활동에 따른 연구’를 주제로 설문지를 작성한다. 중학생의 대중음악 선호도 10문항,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소감 10문항, 음악적 동기 10문항, 음악교육활동 11문항 총 41문항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다.

3. 연구절차

설문지 조사는 2013년 9월부터 10월초까지 두 달 동안 J지역 중학교 2학년층 대상으로 제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조사는 연구자가 대상학교의 음악선생님과 사전에 검사목적, 실시방법, 기입요령 등의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음악수업 시간 전 음악실에서 개별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으로 작성토록 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00% 회수하였고, 학생들이 배포된 설문지에 응답을 할 때 복수의 응답을 하거나 기재한 응답의 빈 곳이 50%를 넘는 경우의 설문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총 중학생 300명의 자료가 연구에 적용되었다.

4. 자료처리

본 논문은 조사 결과를 위하여 편의상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의 일반적 방법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중학교 음악에 있어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대중음악을 중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선호하는지, 그리고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음악교육 향상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악능력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된 설문지를 토대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대중음악 선호도

중학생들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10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학교의 학생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대중음악을 어느 정도 선호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조사한 결과 67.5%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3.6%가 대중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가요를 좋아하는 학생이 64.3%였다. 또한 대중음악 중 선호하는 장르로 발라드 55%, 댄스 31.3%였고, 그 이유로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78%가 ‘대중음악이 음악수업시간에 필요하다’라고 답하였고, 그중 가요를 64.3%가 배우고 싶어 하였다. 수업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으로 대중음악이 55.3%, 클래식이 35%였으며, 어려워하는 수업으로는 77%가 국악이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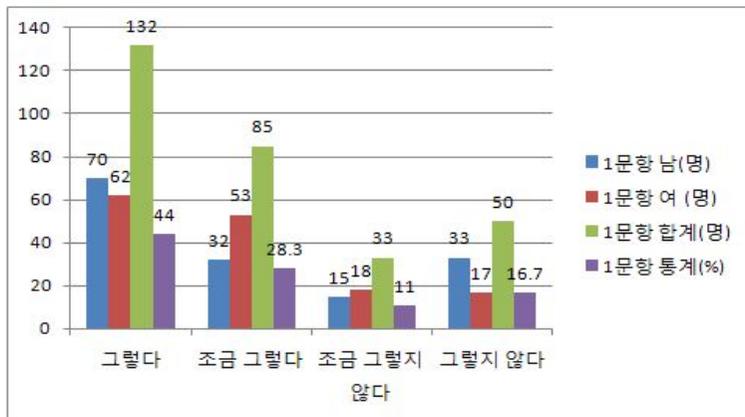
이처럼 중학생들은 대중음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대중음악을 소재로 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2.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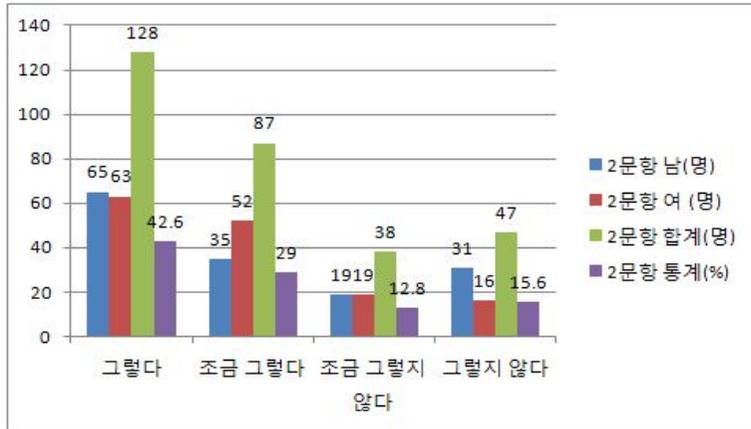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들의 시청 소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10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주1회 이상 즐겨 보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44%(남 70명, 여62명), ‘조금 그렇다’ 28.3%(남32명, 여53명), ‘그렇지 않다’ 16.7%(남33명, 여17명), ‘조금 그렇지 않다’ 11%(남15명, 여18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에서 주 1회 이상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학생으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긍정적 대답이 전체의 67.8%(217명)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음악이 중학생들에게 헛수에 관계없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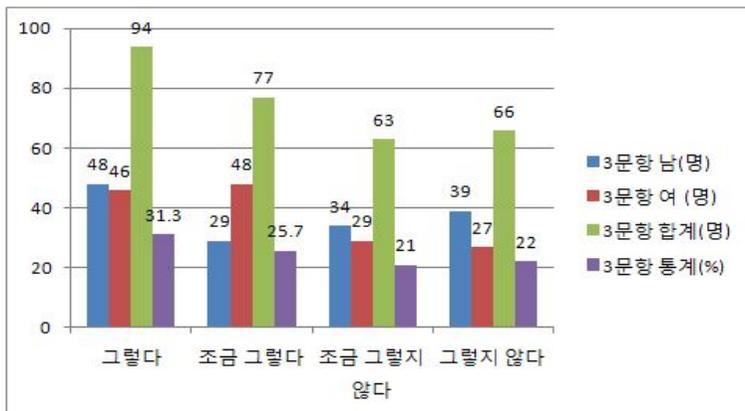
[그림 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 정도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즐거움을 느끼고 다음 회가 기대되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42.6%(남65명, 여63명), ‘조금 그렇다’ 29%(남35명, 여52명), ‘조금 그렇다 않다’ 12.8%(남19명, 여19명), ‘그렇지 않다’ 15.6%(남31명, 여16명)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에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긍정적인 대답으로 전체의 41.6%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음 회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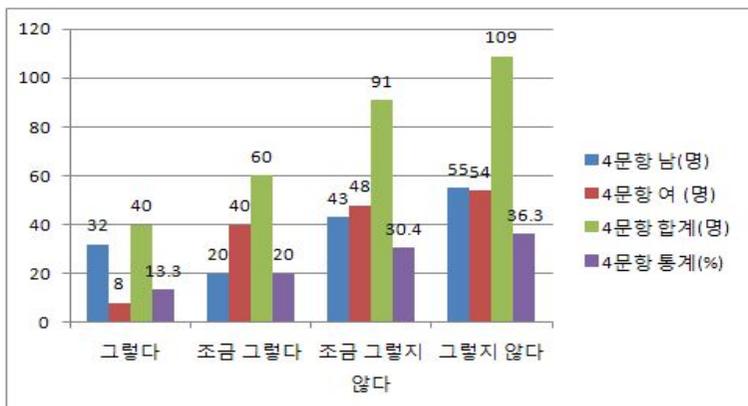
[그림 2]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기대감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하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31.3% (남48명, 여46명), ‘조금 그렇다’ 25.7%(남29명, 여48명), ‘그렇지 않다’ 22%(남39명, 여27명), ‘조금 그렇지 않다’ 21%(남34명, 여29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에서 전체의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응답자가 56.7%로 절반 이상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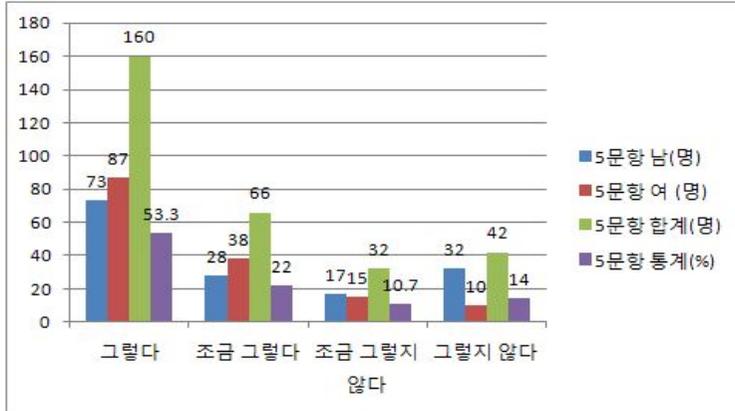
[그림 3]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정도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도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36.3%(남55명, 여54명), ‘조금 그렇지 않다’ 30.4%(남43명, 여48명), ‘조금 그렇다’ 20%(남20명, 여40명), ‘그렇다’ 13.3%(남32명, 여8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에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응답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그렇다’ 경우 전체 남학생 21%(32명), 여학생 5.3%(8명)로 15.7%의 차이를 보였으며, ‘조금 그렇다’의 경우 남학생 13.3%(20명), 여학생 26.6%(40명)로 13.3 %의 차이를 보이며, 남·여 학생이 도전하고 싶은 충동에 남학생이 더 적극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전체 통계 자료를 해석하자면 ‘도전하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의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 긍정적인 대답이 33.3%, ‘조금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대답이 66.8% 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도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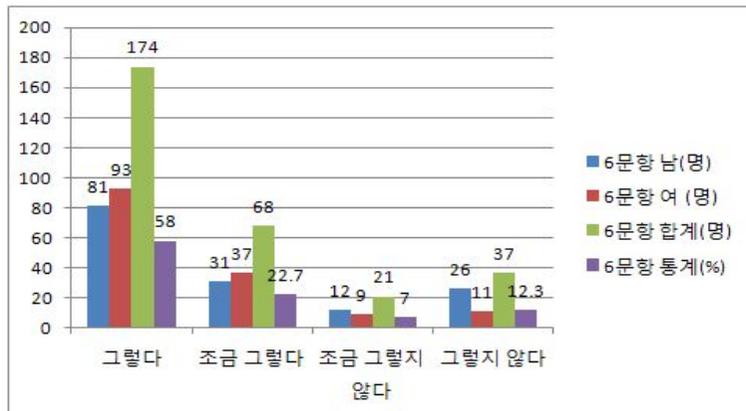
[그림 4]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도전 욕구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기억에 남는 음악을 검색한 적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53.3%(남73명, 여87명), ‘조금 그렇다’ 22%(남27명, 여38명), ‘그렇지 않다’ 14%(남17명, 여15명), ‘조금 그렇지 않다’ 10.7%(남28명, 여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긍정적 대답이 전체의 75.3%로 나타남에 따라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 후, 기억에 남는 음악을 인터넷 등으로 검색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수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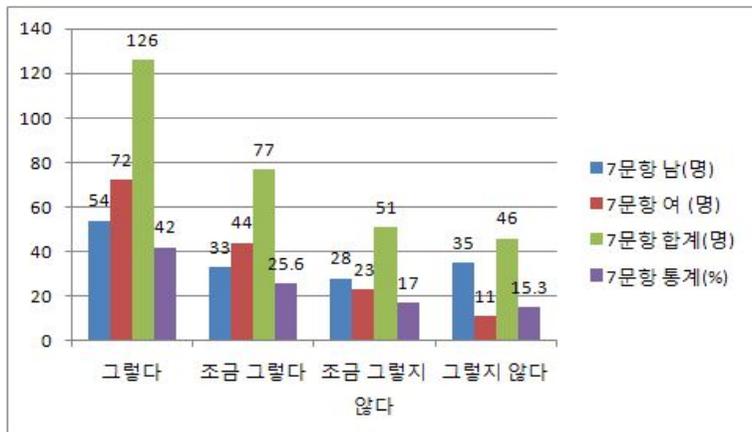
[그림 5] 음악 검색 정도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기억에 남는 음악을 다운 받아 들은 적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58%(남81명, 여93명), ‘조금 그렇다’ 22.7%(남31명, 여37명), ‘그렇지 않다’ 12.3%(남26명, 여11명), ‘조금 그렇지 않다’ 7%(남12명, 여9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그림16]에서 처럼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기억에 남는 음악을 인터넷 등으로 검색하여 [그림17]의 설문처럼 80.7%가 다운 받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대중음악 역시 높음 선호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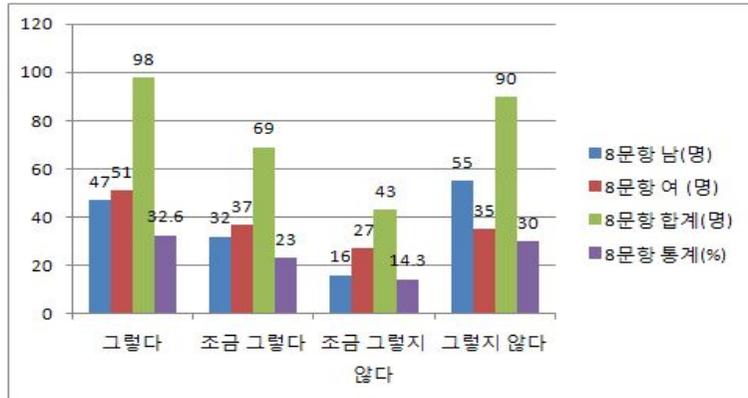
[그림 6] 음악 다운로드 경험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본 후,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42%(남54명, 여72명), ‘조금 그렇다’ 25.6%(남33명, 여44명), ‘조금 그렇지 않다’ 17%(남28명, 여23명), ‘그렇지 않다’ 15.3%(남35명, 여11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의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 의 긍정적 대답이 전체의 67.6%로 비교적 방송을 본 후 학생들과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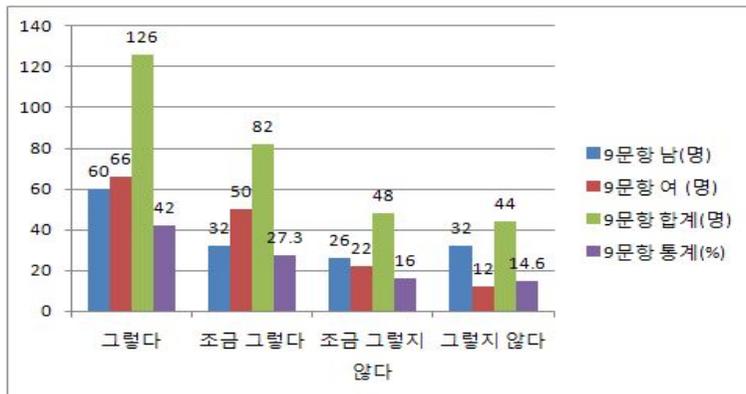
[그림 7] 음악적 대화 경험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재미있다면 친구들에게 방송을 추천한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32.6%(남47명, 여51명), ‘그렇지 않다’ 30%(남55명, 여35명), ‘조금 그렇다’ 23%(남32명, 여37명), ‘조금 그렇지 않다’ 14.3%(남16명, 여27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방송을 친구들에게 조금 더 추천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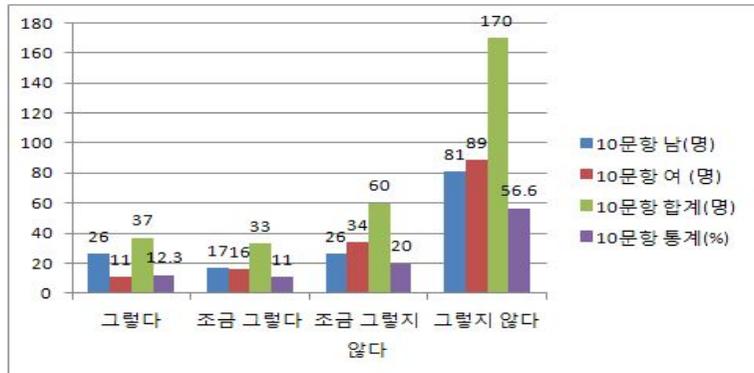
[그림 8]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추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곡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42%(남60명, 여66명), ‘조금 그렇다’ 27.3%(남32명, 여50명), ‘조금 그렇지 않다’ 16%(남26명, 여자22명), ‘그렇지 않다’ 14.6%(남32명, 여12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학생들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곡을 알게 되면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 등을 검색하고, 다운 받아 듣게 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것은 학생들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대중음악의 새로운 곡에 대한 호기심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은 없지만,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청하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56.6%(남81명, 여89명), ‘조금 그렇지 않다’ 20%(남26명, 여34명), ‘그렇다’ 12.3%(남26명, 여11명), ‘조금 그렇다 11%’(남17명, 여16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학생들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단지 이야기를 하며 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하여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10]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

이처럼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소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67.3%가 주 1회 시청한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 주는 수치이며, 그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57%가 끝까지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통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공감대 형성과 높은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도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33.3%의 학생만이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66.7%의 학생이 부정적인 답을 하여 학생의 도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학생 수에 비해 무려 2배에 달하는 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오디션이란 것은 보는 것에 호기심과 즐거움을 찾는 것과는 달리 도전하고 싶은 충동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기억에 남는 음악을 검색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 75.3%, ‘그렇지 않다’ 24.7%,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에 차이 폭이 50.7%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운 받아 들은 적이 있느냐’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이 80.7%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학생이 19.3%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중학생들이 대중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미디어 시대에,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음악을 즉시 찾아 들을 수 있고, 검색한 음악을 다운 받아 자유롭게 듣고 활용할 수 있는 세대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67.6%가 친구들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이었다. 이는 부정적 대답의 2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이야기의 주제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야기 될 만큼의 큰 선호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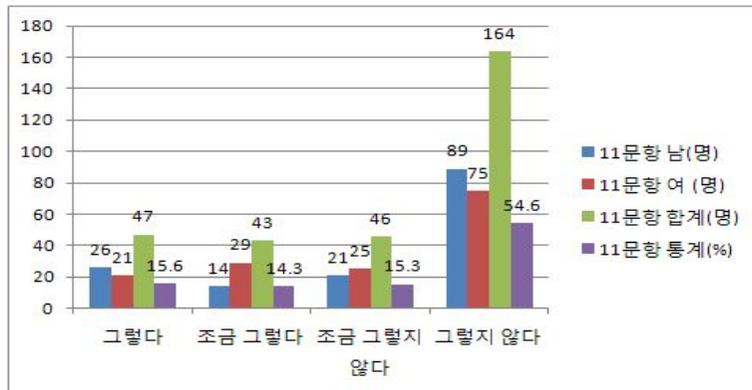
그러나 ‘본인 이 시청한 오디션 방송을 친구들에게 추천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55.6%, ‘그렇지 않다’ 44.3%로 ‘그렇다’가 10%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방송을 본 후 절반이상의 학생이 친구들에게 방송에 대해 추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곡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다’의 긍정적 대답이 69.3%,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대답이 30.6% 로 약 70% 정도가 새로 알게 된 대중음악 곡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소감에 마지막 질문으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관심은 없지만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청하느냐’의 질문에 ‘그렇다’의 대답이 23.3%, ‘그렇지 않다’의 대답이 76.6%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중학생들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유는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즐거움과 긍정적 의지로 방송을 시청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처럼 중학생들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며 공감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학교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음악수업이 될 것이다.

2)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음악교육에 대한 음악적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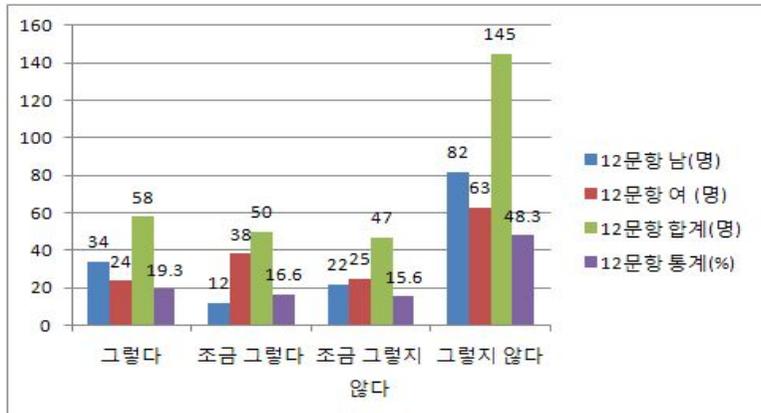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들의 음악교육에 어느 정도의 음악적 동기로 작용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하여 10문항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음악에 관심이 생겨 음악동아리, 방과 후 특별활동 등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54.6%(남89명, 여75명), ‘그렇다’ 15.6%(남26명, 여21명), ‘조금 그렇지 않다’ 15.3%(남21명, 여25명), ‘조금 그렇다’ 14.3%(남14명, 여29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29.9%가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긍정적 대담으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동아리활동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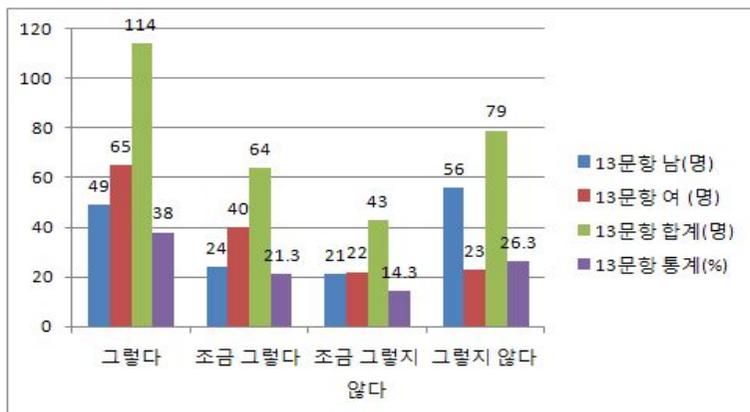
[그림 1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음악활동 욕구

‘우리학교의 음악동아리, 특별활동 등 이외에 새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음악활동이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48.3%(남82명, 여63명), ‘그렇다’ 19.3%(남34명, 여24명), ‘조금 그렇다’ 16.6%(남12명, 여38명), ‘조금 그렇지 않다’ 15.6%(남22명, 여25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음악 동아리(밴드보컬, 기타, 뮤지컬 영화감상, 보컬), 특별활동(방과 후 활동으로 가야금, 바이올린, 난타, 통기타, 밴드와 보컬) 총 9개 음악부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위 물음에 대한 조사 결과로 학교에 개설된 9개 부서에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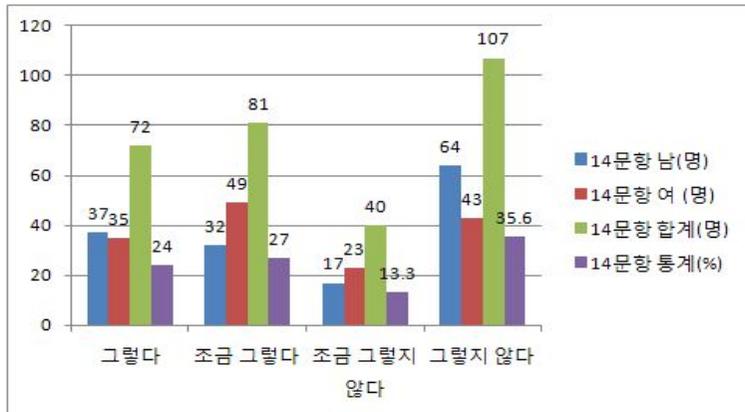
[그림 12] 우리학교의 음악동아리, 특별활동 등 참여 욕구

‘학교 수업과 동아리, 특별활동 이외에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38%(남49명, 여65명), ‘그렇지 않다’ 26.3%(남56명, 여23명), ‘조금 그렇다’ 21.3%(남24명, 여40명), ‘조금 그렇지 않다’ 14.3%(남21명, 여22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비교 하자면, 남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다’가 56명으로 37.3%, 여학생은 ‘그렇다’가 65명으로 43.3%를 차지하며, 둘의 차이가 6%를 보였다. 이 조사결과는 학생들이 악기를 배워보고 싶어 하는 선호도의 수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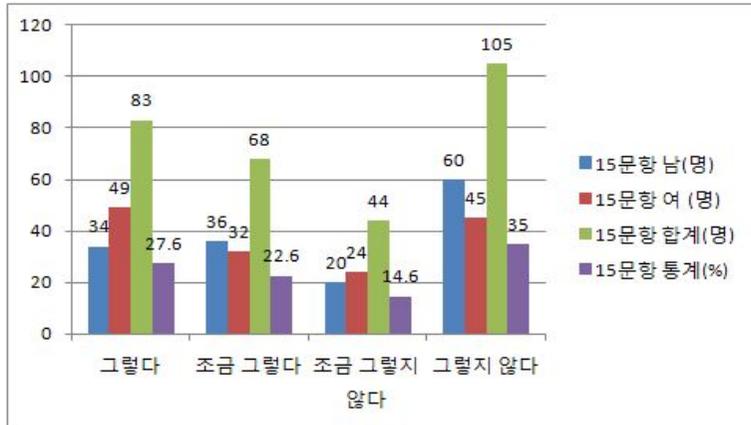
[그림 13]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악기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보컬관련 음악을 배워 보고 싶었던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뮤지컬, 락, 가요, 성악 등) ‘그렇지 않다’ 35.6%(남64명, 여43명), ‘조금 그렇다’ 27%(남32명, 여49명), ‘그렇다’ 24%(남37명, 여35명), ‘조금 그렇다’ 13.3%(남17명, 여23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음악장르 중 보컬(24%) 배워보고 싶은 학생이 악기(38%)에 비해 14% 더 낮게 나타남을 13문항과 14문항을 통해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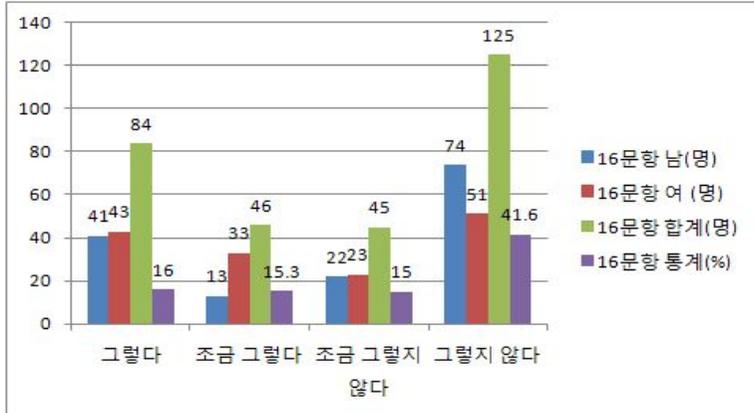
[그림 14] 보컬관련 음악 실태

‘학교 추천음악회 이외에 개인적으로 음악 공연이나 음악회,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35%(남60명, 여45명), ‘그렇다’ 27.6%(남34명, 여49명), ‘조금 그렇다’ 22.6%(남36명, 여32명), ‘조금 그렇지 않다’ 14.6%(남20명, 여24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학교 추천음악회이외에 자발적으로 음악회에 간 학생이 있다’의 긍정적 대담으로 50.2%가 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음악회에 간 적이 없다’ 부정적 대담으로 49.6%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전체 통계의 가장 높은 수치보다,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 그리고 ‘조금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긍정적과 부정적 대담으로 나누어 %를 낸 수치로, ‘개인적으로 음악회를 간 적이 있다’의 긍정적 대담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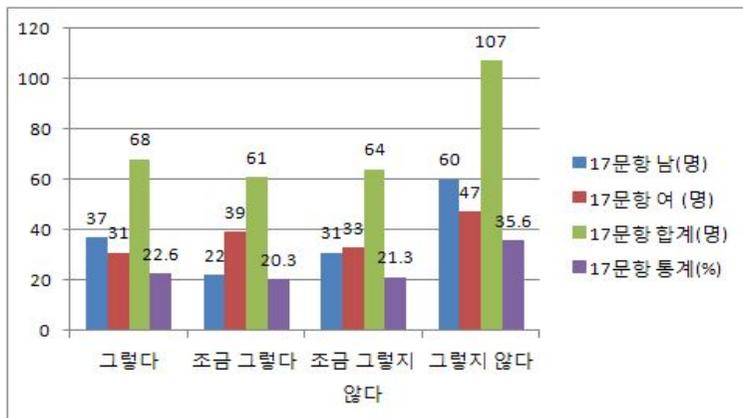
[그림 15] 음악 공연 참여 실태

‘개인적으로 가수의 콘서트, 야외음악 공연이 열리면 보러 간 적이 있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41.6%(남74명, 여51명), ‘그렇다’ 16%(남41명, 여43명), ‘조금 그렇다’ 15.3%(남13명, 여33명), ‘조금 그렇지 않다’ 15%(남22명, 여2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가수의 콘서트’ 또는 ‘야회 공연에 간 적이 있는지’에 대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긍정적 대답으로 31.3%가 대답하였고, ‘조금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대답으로 56.6%가 답하였다. 긍정적 수치로 15문항의 ‘개인적인 음악회를 보러 간 적이 있는지’에 대한 수치 50.2%에 반해, ‘가수의 콘서트나 야외공연을 간 적 있다’의 긍정적 대답으로 31.3%로 ‘음악회’와 ‘가수의 콘서트’의 차이가 18.7%로 개인적으로 ‘음악회’를 간 학생의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약3분의 1정도만 긍정적 대답을 함으로 15, 16문항의 음악회, 야외공연 등에 대하여 모두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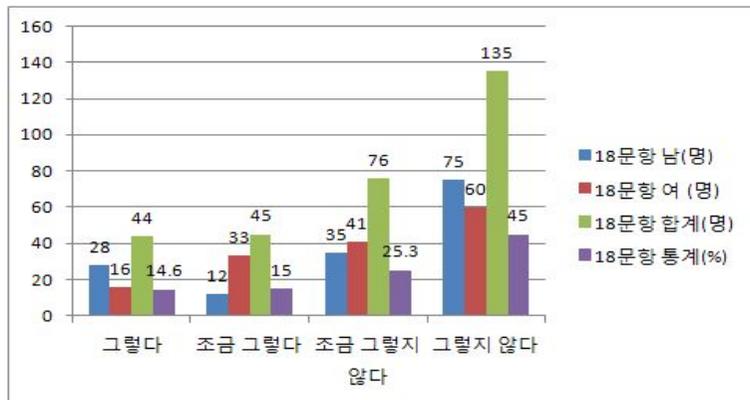
[그림 16] 개인적으로 가수의 콘서트, 야외음악 공연 참여 실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노래에 관심이 생겨 배워보고 싶었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35.6%(남60명, 여47명), ‘그렇다’ 22.6%(남37명, 여31명), ‘조금 그렇지 않다’ 21.3%(남31명, 여33명), ‘조금 그렇다’ 20.3%(남22명, 여39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그렇다’ 와 ‘조금 그렇다’의 긍정적 답으로 42.9%가 대답하였고, ‘조금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의 답으로 56.9%로 부정적인 대답이 긍정적 대답 보다 14% 더 높게 나타남으로 ‘노래를 배워 보고 싶다’의 소극적 대답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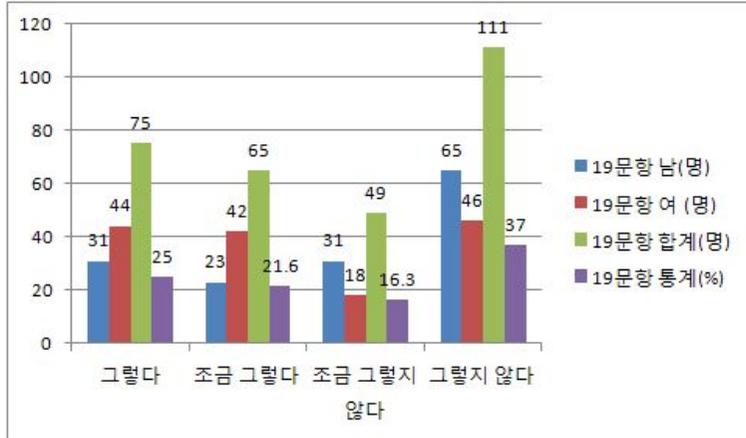
[그림 17]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노래에 관심 정도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뮤지컬에 관심이 생겨 배워보고 싶어 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45%(남75명, 여60명), ‘조금 그렇지 않다’ 25.3%(남35명, 여41명), ‘조금 그렇다’ 15%(남12명, 여33명), ‘그렇다’ 14.6%(남28명, 여16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17문항의 ‘노래에 대한 관심으로 배워보고 싶어 졌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16% 반해, ‘뮤지컬을 배워보고 싶어 졌느냐’가 14.6%로 뮤지컬이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노래라고 통틀어 물어 보는 질문에 1.4%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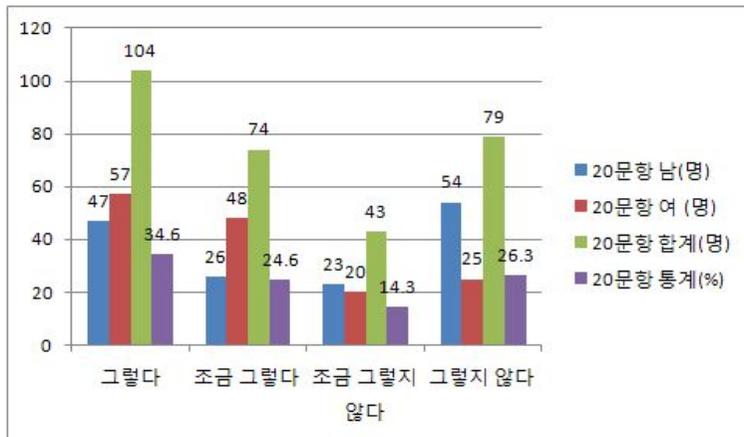
[그림 18] 뮤지컬 관심 정도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키보드, 피아노에 관심이 생겨 배워보고 싶어 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37%(남65명, 여46명), ‘그렇다’ 25%(남31명, 여44명), ‘조금 그렇다’ 21.6%(남23명, 여42명), ‘조금 그렇지 않다’ 16.3%(남31명, 여18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건반악기인 ‘키보드와 피아노를 TV방송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 후, 배우고 싶어 졌느냐’ 물음에 대하여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긍정적인 대담으로 전체의 36%(54명)가 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전체의 57.3%(86명)가 답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전체 남·여 학생의 통계로는 ‘그렇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여의 수치를 따로 분석하여 보면 긍정적인 대담으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21.3%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음악오디션 프로그램 시청 후 건반악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9] 키보드, 피아노에 관심 정도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드럼, 기타에 관심이 생겨 배워보고 싶어졌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34.6%(남47명, 여57명), ‘그렇지 않다’ 26.3%(남54명, 여25명), ‘조금 그렇다’ 24.6%(남26명, 여48명), ‘조금 그렇지 않다’ 14.3%(남23명, 여20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드럼과 기타’에 대한 선호도가 21.4%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0] 드럼, 기타에 관심 정도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의 음악적 동기를 알아보고자 10문항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음악동아리, 방과 후, 특별활동에 가입한 적이 있다’의 긍정적 대답이 29.9% 였다. 또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학교의 동아리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의 음악동아리 이외에 새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음악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의 긍정적인 대답이 35.9%,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대답이 63.9%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수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수 보다 28%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문지를 조사한 학교의 현재 1~3학년대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와 방과 후 음악활동이 운영 중에 있으며, 동아리 음악부서로는 밴드보컬, 기타, 뮤지컬영화감상, 보컬 이렇게 총 4개의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방과 후 음악 부서로는 가야금, 바이올린, 난타, 통기타, 밴드와 보컬 이렇게 총 5개로 운영이 되어 학교의 운영에 대체로 만족한 이유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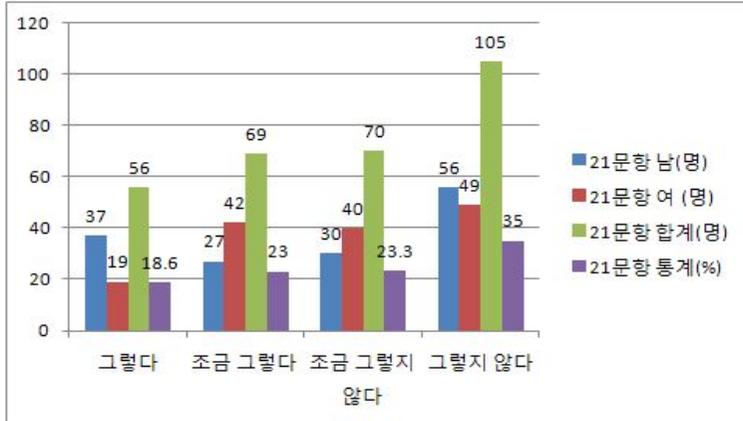
위의 설문조사 가운데, 학교 음악활동에 따른 조사에서 보면 학교의 음악활동 부서에 학생들의 63.9%가 현재 운영 중의 음악활동에 만족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 이외에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의 긍정적인 대답이 59.3%,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대답이 40.6%로 ‘그렇다’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의 대답 보다 18.7%로 더 높게 나타남으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함으로써 악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보컬관련 음악을 배워보고 싶다’의 긍정적 대답을 한 학생이 51%,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 학생은 49.6%로 보컬을 배워 보고자하는 학생의 긍정적 대답이 5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보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진다. 학생들이 음악을 현장에서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로 ‘학교 추천음악회 이외에 개인적으로 음악 공연이나 음악회,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이 29.3%로 ‘음악회 또는 뮤지컬’을 감상한 경험이 ‘가수의 콘서트 또는 야외공연’보다 20.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음악공연과 음악회, 뮤지컬에 대한 관심도가 가수의 콘서트, 야외공연 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음악회, 야외공연 등에 대한 중학생의 관심은 적게 나타났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학생들이 배워보고 싶어하는 영역을 알아보고자, ‘노래, 뮤지컬,

키보드-피아노, 드럼-기타' 4가지 물음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노래'의 긍정적 대답은 42.9%, 부정적 대답은 56.9%로 부정적인 대답이 14% 더 높게 나타났고, '뮤지컬'의 긍정적인 대답은 29.6%, 부정적 대답은 70.3%로 부정적인 대답이 40.7% 더 높게 나타났다. '노래와 뮤지컬'을 보았을 때 '노래를 배워보고 싶다'가 '뮤지컬'보다 13.3% 더 높게 조사되었다. '키보드-피아노'의 경우 긍정적인 대답이 46.6%, 부정적인 대답이 53.3%로 부정적인 대답이 6.7% 더 높게 조사되었고, '드럼-기타'의 경우 긍정적인 대답이 59.2%, 부정적인 대답이 40.6%로 긍정적인 대답이 18.6% 더 높게 조사되었다. '키보드-피아노'와 '드럼-기타'의 경우를 비교하면 '드럼-기타'가 12.6%로 더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워보고 싶은 음악영역을 4가지로 비교해본 결과 '드럼-기타', '키보드-피아노', '노래', '뮤지컬'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위의 결과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 반주로 사용하는 드럼, 기타, 키보드, 노래(보컬) 등이 학생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본 후, 음악수업활동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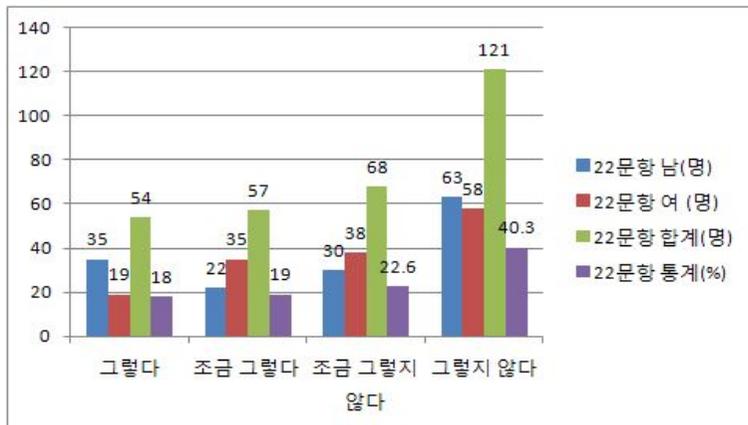
중학생들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학교 음악수업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11문항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음악수업시간이 즐거워 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35%(남56명, 여49명), '조금 그렇지 않다' 23.3%(남30명, 여40명), '조금 그렇다' 23%(남27명, 여42명), '그렇다' 18.6%(남37명, 여1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긍정적 대답으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경우 남학생 42.6%(64명), 여학생 40.6%(61명)로 전체 41.6%가 답한 것이다. 조사결과 학생 수의 절반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학교 음악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분명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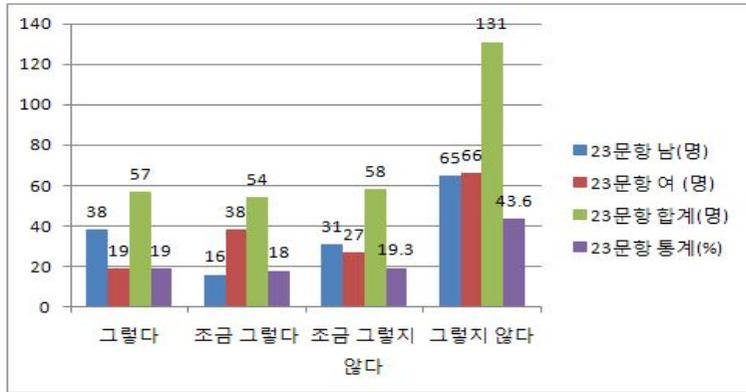
[그림 21]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음악수업시간 흥미 정도

‘음악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40.3%(남63명, 여58명), ‘조금 그렇지 않다’ 22.6%(남30명, 여38명), ‘조금 그렇다’ 19%(남22명, 여38명), ‘그렇다’ 18%(남35명, 여19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설문 조사 해당 학교의 주당 2학년 음악시간 시수로 주2시수 진행 되어 짐에 따라, 학교 음악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가 ‘음악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느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통계 결과 40.3%로 설문조사한 학교의 음악 수업에 학생들의 40.3%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재해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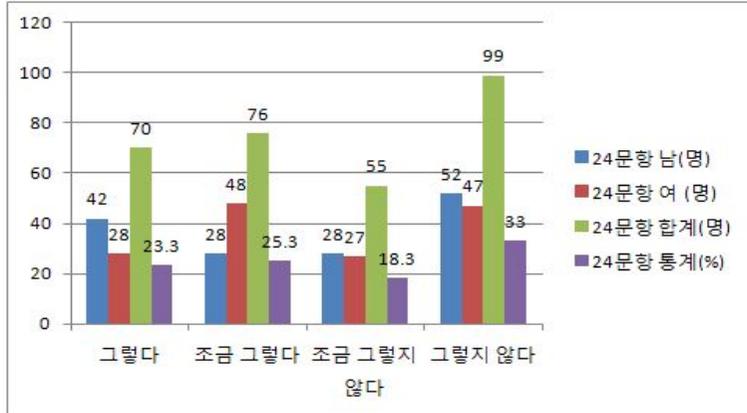
[그림 22] 음악수업 시간이 부족

‘음악수업 시간 중 가창수업이 즐겁게 느껴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43.6% (남65명, 여66명), ‘조금 그렇지 않다’ 19.3%(남31명, 여27명), ‘그렇다’ 19%(남38명, 여19명), ‘조금 그렇다’ 18%(남16명, 여38명)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가창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긍정적 대담으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 남학생 36%(54명), 여학생 38%(57명) 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체 37%(111명) 가 가창수업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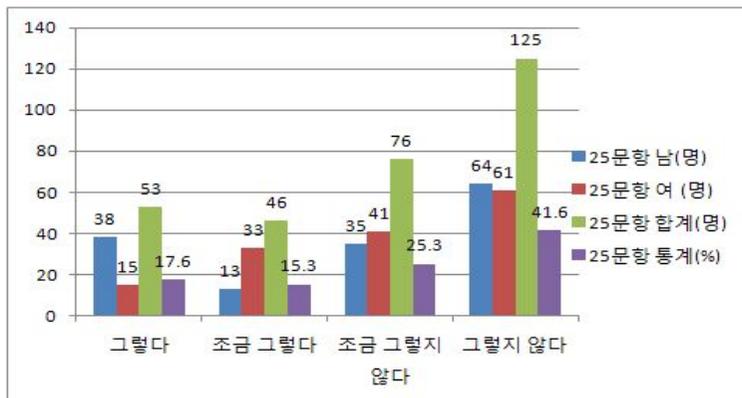
[그림 23] 음악수업 시간 중 가창수업

‘음악수업 시간 중 악기수업이 즐겁게 느껴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33% (남52명, 여47명), ‘조금 그렇다’ 25.3%(남28, 여48명), ‘그렇다’ 23.3%(남42명, 2여28명), ‘조금 그렇지 않다’ 18.3% (남28명, 여27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음악수업 중 악기를 선호하는 수치는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남학생 46.6%(70명), 여학생 50.6%(76명)로 전체의 48.6%가 음악수업 중 악기 수업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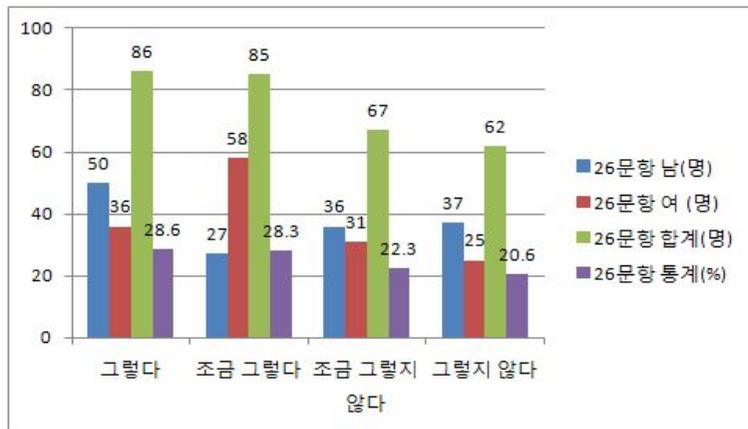
[그림 24] 음악수업 시간 중 악기수업

‘음악수업 시간 중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 만들기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41.6%(남64명, 여61명), ‘조금 그렇지 않다’ 25.3%(남35명, 여 41명), ‘그렇다’ 17.6%(남38명, 여15명), ‘조금 그렇다’ 15.3%(남13명, 여33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컴퓨터로 음악 만들기 수업시간이 즐겁다’의 긍정적 답으로 남학생 37%(51명), 여학생 32%(48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5%더 높게 나타났고, 전체 32.9% 만이 ‘컴퓨터로 음악 만들기 수업시간’을 즐거워하며, 67.1%의 학생 들은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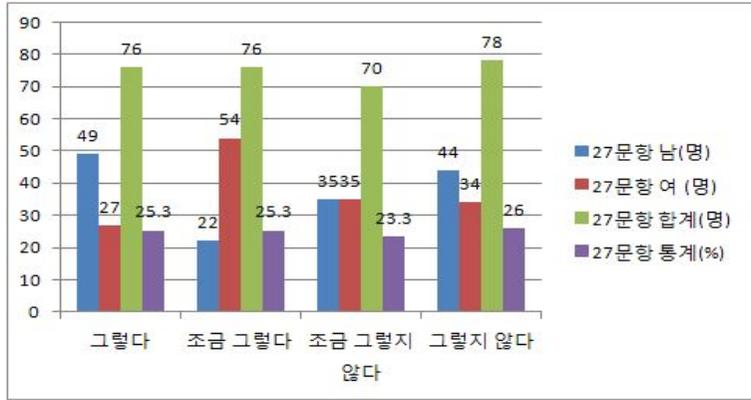
[그림 25] 음악수업 시간 중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 만들기

‘음악수업 시간 중 클래식 음악 감상을 할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느냐’의 물음에 ‘그렇다’ 28.6%(남50명, 여36명), ‘조금 그렇다’ 28.3%(남27명, 여58명), ‘조금 그렇지 않다’ 22.3%(남36명, 여31명), ‘그렇지 않다’ 20.6%(남37명, 여2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 감상을 할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의 긍정적 대담으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남학생 51%(77명), 여학생 62.6%(94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1.6%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56.9%가 클래식 음악감상 시간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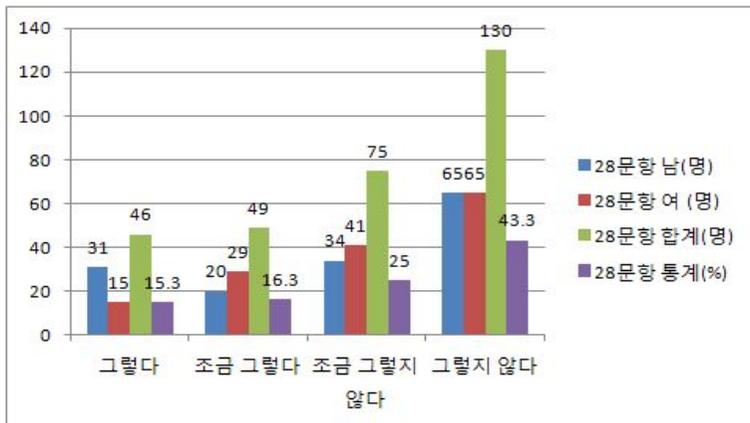
[그림 26] 음악수업 시간 중 클래식 음악 감상

음악수업 시간 중 영상음악을 이용한 감상 수업이 기억에 오래 남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26%(남44명, 여34명), ‘그렇다’ 25.3%(남49명, 여27명), ‘조금 그렇다’ 25.3%(남22명, 여54명)으로 여학생의 수가 32명 높게 나타났다, ‘조금 그렇지 않다’ 23.3%(남35명, 여35명)순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수업 시간에 영상을 통한 감상수업이 학생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의 긍정적인 대담으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에 남학생 47.3%(71명), 여학생 54%(81명) 전체 50.6%로 나타남에 따라, 영상을 통한 음악감상 수업이 기억에 오래 남는 다가 전체의 50%이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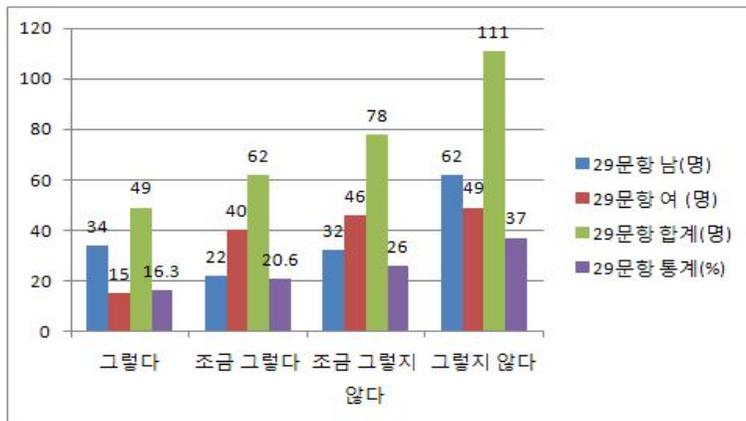
[그림 27] 음악수업 시간 중 영상 음악을 이용한 감상 수업

‘음악수업 시간 중 음악을 활용한 신체 리듬표현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43.3%(남65명, 여65명), ‘조금 그렇지 않다’ 25%(남34명, 여41명), ‘조금 그렇다’ 16.3%(남20, 여29명), ‘그렇다’ 15.3%(남31명, 여15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음악을 활용한 신체리듬 표현하기 수업이 즐거워 졌느냐’의 답으로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 31.6%, ‘조금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 68.3%로 음악을 활용한 신체 리듬 표현하기 시간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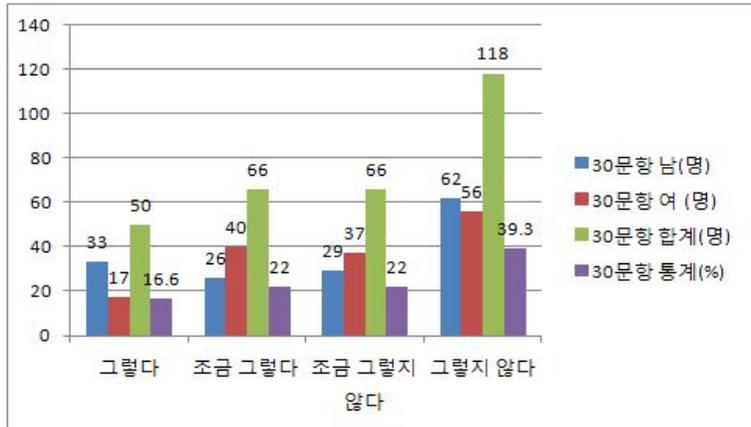
[그림 28] 음악수업 시간 중 음악을 활용한 신체 리듬표현 시간

‘음악수업 시간 중 음악활동(만들기, 오르프 악기로 리듬 익히기 등)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37%(남62명, 여49명), ‘조금 그렇지 않다’ 26%(남32명, 여46명), ‘조금 그렇다’ 20.6%(남22명, 여40명), ‘그렇다’ 16.3%(남34명, 여15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수업시간 중 음악 활동시간이 즐겁다’의 긍정적 대담으로 남학생 37.3%(56명), 여학생 36.6%(55명) 전체 36.9%가 음악활동 시간을 즐거워하며, 음악활동 시간을 어려워하는 학생은 전체의 6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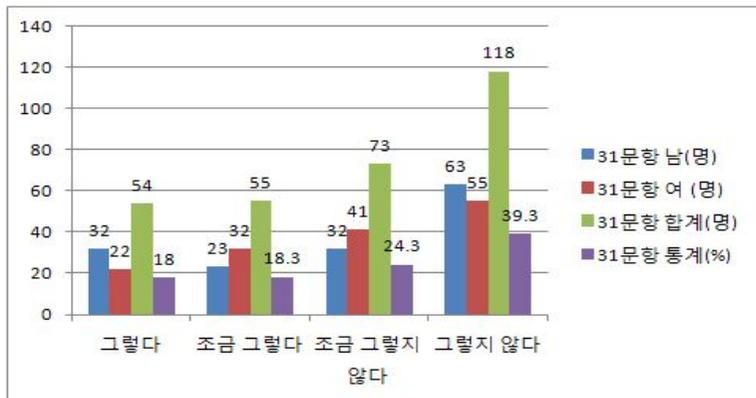
[그림 29] 음악수업 시간 중 음악활동 시간

‘음악수업이 있는 그 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졌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39.3%(남62명, 여52명), ‘조금 그렇다’ 22%(남26명, 여40명), ‘조금 그렇지 않다’ 22%(남29명, 여37명), ‘그렇다’ 16.6%(남33명, 여17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음악수업이 있는 하루가 좋다’의 긍정적 대담으로 전체 학생 중 38.6%(남학생 39.3%(59명), 여학생 38%(57명))만이 음악수업으로 하여금 그 날 하루가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0] 음악수업이 있는 날의 기분

‘음악수업 시간 후 배웠던 음악을 생활 속에서 즐기느냐’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39.3%(남63명, 여56명), ‘조금 그렇지 않다’ 24.3%(남32명, 여41명), ‘조금 그렇다’ 18.3%(남23명, 여32명), ‘그렇다’ 18%(남32명, 여22명) 순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결과 ‘음악수업시간에 배운 음악을 생활에서 즐기느냐’의 긍정적인 대담으로 전체 중 36.3% (남학생 36.6%(55명), 여학생 36%(54명)) 만이 학교 음악교육에서 배운 음악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학교음악의 생활화 정도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학교에서의 음악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11문항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악수업이 즐거워졌다’의 물음에 ‘그렇다’의 긍정적인 대답이 41.6%,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대답이 58.3%로 부정적인 대답이 긍정적 대답 보다 16.7%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 후 음악수업에 상관관계가 41.6%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음악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느냐’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의 긍정적인 대답이 37%,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대답이 62.9%로 37%가 음악 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음악수업시간 중 어느 영역이 가장 즐거운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창, 악기, 컴퓨터 음악 만들기, 음악신체 리듬 표현, 음악활동(만들기, 오르프 악기 등)’ 총 5가지 영역 중 가장 즐겨하는 음악수업 순서로는 악기 48.6%, 가창 37%, 음악활동 36.9% 컴퓨터 음악 만들기 32.9%, 음악신체 리듬 표현하기 31.6%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수업 시간에 즐겨하는 영역으로 악기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악으로 신체리듬 표현하기 수업을 악기 수업보다 17%의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음악 감상 시간에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느냐의 물음과 음악영상 감상이 기억에 오래 남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편안함을 느낀다’ 56.9%, ‘그렇지 않다’ 42.9%로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대답한 학생의 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음악영상을 통한 감상수업이 기억에 남는 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다’ 50.6%, ‘그렇지 않다’ 49.3% 로 음악영상을 통한 감상수업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음악수업 시간이 있는 날 기분이 좋느냐’에 대한 물음으로 음악수업 시간과 중학생의 그 날 기분에 대해서는 36.3%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음악수업 시간 후, 배웠던 음악을 생활 속에서 즐기느냐’ 대한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으로 36.3%가 수업 중 배운 음악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호와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성향을 조사하였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지는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성공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중학생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대중음악의 선호 성향을 살펴 보았다. 또한 현재 음악교육에서는 그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가르치는지, 음악교과에서의 그 비중은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과 영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근 현황으로는 2009년 Mnet '슈퍼스타K', 2010년 MBC '위대한 탄생', 2011년 SBS 'K-Pop Star' 등 현재 까지 여러 방송사에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청률('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 MBC '위대한 탄생'의 경우 가장 높은 시청률이 22.8%, SBS 'K-Pop Star'의 경우 19.5%, Mnet '슈퍼스타K' 18.1%로 평균 10% 이상의 시청률을 보였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은 공정경쟁과 매회 결과를 알 수 없는 반전구도에 의한 예측의 혼돈성, 그리고 대리만족 등이 있다.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높은 인기는 중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음악을 선호하는 학생이 83.6%로 조사되었고, 그중 가요를 좋아하는 학생이 64.3%였다. 또한 가요 중에서도 발라드를 좋아하는 학생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이유는 64.6%의 학생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대중음악은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친구들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음악교육에서도 대중음악을 78%가 배우고 싶어 하였고, 그 영역 중 64.3%가 가요를 선택하였다. 중학생들은 대중음악을 선호하고 그 중 가요를 좋아하며, 음악수업시간에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을 학교교육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09 개정 음악과교육과정 중등음악교과서 5종에 대한 출판사별 대중음악 수록곡을 분석한 결과 두산동아 24.2%, (주)금성출판사 21%, (주)지학사 19.4%, 도서출판태성 17.4%, 천재교과서 15.8%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중음악이 2009 개정 중등음악교과서 내에서 대중음악 단원을 별도로 나누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음악교과서 내에 다루어지는 대중음악은 1980~1990년대의 대중음악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빠른 변화에 민감한 중학생들이 다양한 불거리와 서바이벌 형식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대중매체의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그 시선을 돌려가고 있다.

중학생들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므로 침체되었던 학교음악 교육에 어떤 변화로 다가 왔는지는, 선호도, 시청소감, 음악수업에 대한 음악적 동기, 음악 활동에 대한 욕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감을 느끼고, 방송에서 다루어진 음악 중 기억에 남는 음악을 매체들을 통해 검색해 보고 음악을 다운 받아 들으며 대중음악을 즐긴다. 또한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친구들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청을 못한 친구에게는 추천도 한다.

이처럼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생활속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다루어졌던 대중음악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음악에 관심이 생겨 즐길 수 있게 된 계기를 오디션 프로그램이 마련 해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음악수업에도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욕구에 변화가 생겨났다. ‘악기를 배워보고 싶은 학생’ 59.3%, ‘보컬을 배워보고 싶은 학생’ 51%로 증가하였다. ‘악기와 보컬’ 중 ‘악기’를 더 배워보고 싶어 하였고, 그 중 ‘드럼, 기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키보드, 피아노’, ‘노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추천 음악회 이외에 가수의 콘서트, 야외공연을 더 관람하고 싶어 했지만, 스스로 관람한 숫자는 지극히 적었다.

음악교육에 대한 영향으로는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본 후, 음악에 대한 자극을 받으며, 다양한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음악수업이 즐거워졌으며, ‘음악수업이 있는 하루가 기분이 좋다’고 답하였다. 즉, 중학생들은 대중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음악 수업이 즐거워 졌으며, 음악에 대한 흥미가 생겨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배워보고 싶어졌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한편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였으며, 음악수업을 즐기고, 음악시간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어떠한 자세로 음악교육을 할 것이며, 다양한 대중매체의 음악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또한 중학생들에게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은 음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음악교육에서 선호하는 장르에 따라 올바른 감상 태도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음악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학생들에게 키워 준다면, 학령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신문화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대중음악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즉 대중음악이 감정적이며 직설적이라는 선입견으로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대중음악이라는 자체를 교양적이지 못하고 ‘딴따라 음악’ 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러한 대중음악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들부터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업 전략으로 음악교육을 활성화 할 매개체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은 다양한 대중매체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대중음악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음악을 듣고, 비평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즉 좋고 나쁨을 선별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대중음악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과 친숙한 중학생들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음악교육에서 조금이나마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음악교육에서 올바른 감상과 적극적인 학습 활동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세운(2012).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연구: ‘슈퍼스타K’와 ‘위대한 탄생’의 서사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혜경(2000). TV 방송음악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과 민족**, 제19호, p.244.
- 김용희,김신영,현경실,현경채,임인경,최유진,오누리(2012.8). 중학교 음악, 서울: (주)금성출판사
- 노연주(2004). 중등음악교육에 필요한 대중음악 지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가요 M/V 리스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방소민(2009). 대중음악이 중학교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박영선(2009). 대중음악이 중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 음악교육의 방향: 중3학생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신혜원(2009). 음악교과서 제재곡에 대한 초등학생의 선호도 분석: 3,4학년 가창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윤명원, 윤경미, 조성기, 이지혜, 최문희(2012.8). 중학교 음악, 서울: 천재교과서.
- 이연화(2012). 고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대중음악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정길선, 황병숙, 유건석, 강세연, 박경준, 엄숙용(2012.8). 중학교 음악, 서울: (주)지학사.
- 정용찬(2008). 미디어통계의 이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주대창, 홍진표, 노혜정, 김동수(2012.8). 중학교 음악, 서울: 도서출판 태성.
- 최은식, 김대원, 박현숙, 권혜근, 강선영, 김주연, 하명진(2012.8). 중학교 음악, 서울: 두산동아
- 네이버블로그(2013.9.20). 우리나라의 오디션 &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http://blog.naver.com/taae27?Redirect=Log&logNo=110140896281> .
- 네이버블로그(2013.5.10). 대중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 한류열풍사랑.
- 위키백과(2013.9.20). 각 방송사별 오디션 프로그램 시청률, AGB 닐슨 조사.

		설문조사 문항	그렇 다	조금 그렇 다	조금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시 청 소 감	1	나는 음악오디션프로그램을 주1회 이상 즐겨 본다.				
	2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다음회가 기대된다.				
	3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다.				
	4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도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5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기억에 남는 음악을 검색한 적이 있다.				
	6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기억에 남는 음악을 다운 받아 들은 적이 있다.				
	7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 시청 후 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8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이 재미있다고 친구들에게 방송을 보라고 추천한 적이 있다.				
	9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곡들을 알게 되면 그 곡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				
	10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청을 한다.				
음 악 적 동 기	11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음악에 관심이 생겨 음악동아리, 방과후 특별활동 등에 가입한 적이 있다.				
	12	나는 우리학교의 음악동아리, 특별활동 등 이외에 새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음악활동이 있다.				
	13	나는 학교 수업과 동아리, 특별활동 이외에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다.				
	14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보컬관련 음악을 배우고 싶었던 적이 있다. (뮤지컬, 락, 가요, 성악 등)				
	15	나는 학교 추천음악회 이외에 개인적으로 음악 공연이나 음악회,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다.				
	16	나는 개인적으로 가수의 콘서트, 야외음악 공연이 열리면 보러 간 적이 있다.				
	17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후 노래에 관심이 생겨 배우보고 싶어 졌다.				
	18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뮤지컬에 관심이 생겨 배우보고 싶어 졌다.				
	19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키보드, 피아노에 관심이 생겨 배우보고 싶어 졌다.				
	20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 후 드럼, 기타에 관심이 생겨 배우보고 싶어 졌다.				

		설문조사 문항	그렇 다	조금 그렇 다	조금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음 악 활 동	21	나는 음악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악수업이 즐거워졌다.				
	22	나는 음악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23	나는 음악수업 시간 중 가창수업이 즐겁다.				
	24	나는 음악수업 시간 중 악기수업이 즐겁다.				
	25	나는 음악수업 시간 중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만들기 시간이 즐겁다.				
	26	나는 음악수업 시간 중 클래식 음악 감상을 할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				
	27	나는 음악수업 시간 중 영상음악을 이용한 감상 수업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28	나는 음악수업 시간 중 음악을 활용한 신체 리듬표현 시간이 즐겁다.				
	29	나는 음악수업 시간 중 음악활동(만들기, 오르프악기로 리듬악하기 등) 시간이 즐겁다.				
	30	나는 음악수업이 있는 그 날 하루가 기분이 좋다.				
	31	나는 음악수업 시간 후 배웠던 음악을 생활 속에서 즐긴다.				